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24호 |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음력 1월 21일 · 불기 2555년 · 주간)

절에 와서 삼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에게
삼배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예불입니다.

-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당신은 무소유 하고 있습니까?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무소유 신드롬 속 이벤트성 변질 우려

2월 28일은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법정 스님의 열반 후 지난 1년간 '법정 스님' '무소유'라는 타이틀이 붙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법정 스님의 뜻과는 달리 늘 스님과 관계된 일은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2010년 교보문고 콘텐츠개발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인들의 책 판매 현황에서 법정 스님은 인기 종교인 저자 1위로 조사됐다. 인터파크 INT 도서부문이 지난해 4~5월 홈페이지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필집 〈무소유〉가 458표(유효응답 9000표)로 읽고 싶은 전자책 1위를 차지했다.

스님의 〈무소유〉는 종교와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곧 법정 스님의 말빚에 대한 '수요'로 나타났고, 상업화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대형서점에서는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2010년까지만 판매되는 법정 스님의 저서와 스님이 생전에 추천한 책, 법정 스님의 삶을 조명한 책 등을 모아 기획전이 열렸다. '행사 도서를 구매한 독자 중 30명을 추첨, 절판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증정한다'며 판촉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법정 스님이 주석했던 불일암, 미래사, 쌍계사는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관광명소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스님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엽서까지 경매에 부쳐졌다. 한 정치인은 법정 스님의 기념관 '무소유 명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순천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되새길 수 있는 무소유의 길(가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신드롬을 넘어 광기로까지 비춰지는 이 같은 모습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한다. 상업화는 법정 스님이 늘 경계하던 일이었다.

스님의 뜻은 한 때의 이슈가 아닌 살아있는 교훈이 돼야 한다. 우리가 이슈화 할 것은 법정 스님의 유품과 책이 얼마에 어떻게 팔리고, 어디에 보관될 것인가가 아니다. 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세상은 여전히 '1+1'을 좋아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무소유'라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우리네 삶에서 무소유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상술화도 문제지만, 깨달음을 원플러스원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처럼 얻으려고 하는 불자들의 자세도 열반 1주기를 맞아 돌아봐야할 때다.

2월 28일(음력 1월 26일)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법정 스님이 만든 시민봉사모임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현)는 28일 11시 서울 길상사 극락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뜻에 따라 가장 간소하게 진행된다. 추모법회에 앞서 스님의 생전 영상과 합창단 음성공양 등 기재를 겸한 추모행사도 열린다.

법정 스님은 평소 부처님의 유훈을 빌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그밖에는 모두 허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우리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언 기자

관련기사 3, 5면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법정 스님이 머물던 송광사 불일암에는 스님의 법향을 흠모하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법정 스님의 기일을 즈음해 맏상좌 덕조 스님이 불일암 후박나무 앞 법정 스님이 마지막 머무는 곳에 서서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있다.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은 말·글·행동이 일치했던 참 선사"라고 회고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824호 CONTENTS

▶5 법정스님 열반 1주년
특집·인터뷰 덕조 스님



▶9 현장속으로
광진노인복지관 졸업식



▶11 기획 연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4/15 선지식을 찾아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20 연재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50년 선암사 분규 끝났다

조계종-태고종 합의 공동 조사·운영키로

한국 현대불교의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50여년 분규가 사실상 종식했다.

조계종 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와 태고종 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협상위원회(위원장 화경)는 2월 9일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해임을 요청하고,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주지가 공동으로 재산관리권 인수를 진행키로 했다. 부동산과 성보문화재 등 재산현황도 공동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선암사 관리·운영을 양 종단이 협의해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전통사찰 관리법에 의해 국가에서 재산관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문광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양쪽 종단이 합의하면 관리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며 조계종과 태고종 선암사 공동 재산관리권 인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태고종 선암사협위 위원장 경담 스님은 "순천시에는 동산에 적립된 금액을 공동으로 인수 받으면 된다. 양 종단은 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 종단은 선암사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진력하게 됐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양 종단별 종무회의와 총무원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동섭·이은정 기자

"5대 결사 불교 내부 역량 의문"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종단 내 소통 어려움 밝혀



"5대 결사는 종단과 불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내부에만 맡겨진다고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의 신년 담화문에서 제시된 '5대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사진)은 화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월 14일 인사동 한 식당에서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3대 사업을 확정한 화쟁위는 의제별 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스님은 앞으로의 화쟁위 활동에 대해 설명한 뒤 "언론은 5대 결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며 5대 결사에 대해 언급했다.

5대 결사는 현재 각 교구본사와 직능단체 등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종단은 단위별 의견 수렴 뒤 구체적 실천 방안을 취합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법 스님은 "우리 불교계 실정에 그런 방식이 잘 될까? 과연 다양한 의견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잘 수렴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상사 안에서도 5대 결사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어려웠다"며 "다른 교구본사와 사찰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박기범 기자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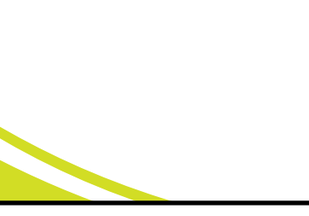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이 2월 17일 법랍 53세, 세수 75세로 화성 만의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의 장례는 21일 용주사에서 용주사 교구장으로 봉행됐다.

정락 스님은 1939년 10월 7일 충남 천안에서 출생했다. 20세 되던 해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1977~1981년까지 지냈다. 1983년 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았고, 1994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정락 스님은 1996년 용주사 주지 소임을 맡은 후 효행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스님은 "어린이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상언 기자





자성과 쇄신 결사에 뜻모아 힘모아

조계종 산하기관 및 단체 동참의사 밝혀

조계종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에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종단 산하 기관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의 동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15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1년 사업기조를 '나눔 결사 실천의 중추로서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정했다"면서 "사찰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불교사회복지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와 사찰을 자비나눔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나눔결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회복지재단은 140여 산하 시설 및 교계 사회복지법인, 교구본사 등을 중심으로 교구본사별 사회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열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유치를 적극지원한다.

종선 스님은 "불교의 유형·무형의 자산 활용을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신· 생태·문화복지 차원에서 불교사회복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이를 자비나눔의 주요영역으로 확장하는 2030 미래발전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재단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묘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중앙신도회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를 출범해 자성과 쇄신을 통해 민족문화수호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했다.

손안식 상임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기금마련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2011년도 예산안 단독 날치기 처리로 정부가 외면한 민족문화유산,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민족문화수호기금을 모금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천위원회는 민족문화수호기금 마련을 위해 단계별 모금 목표를 설정·추진해 2011년 목표 모금액을 8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앞선 11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성명을 통해 종단의 '자정과 쇄신 결사'에 솔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성명서에서 "한국불교는 안타깝게도 외부 의존적 관행과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로 자주성이 퇴색되고, 국민의 삶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이 결국 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오늘날 한국불교는 시대와 사회의 고통을 보살행으로 보듬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가 앞장서 빛나는 수행전통과 구도행을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결사로 승화해 현대인들의 삶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비구니회는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각 문중과 사찰, 모임별로 5대 결사에 대한 실천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같은 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이하 공불련)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묘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하복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자승 스님이 천명한 자성과 쇄신을 위한 종단의 5대 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이동식)는 '조성과 쇄신 결사 제안을 지지합니다' 제하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는 선언문에서 "자성과 쇄신결사는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를 중흥시킬 쾌거이다. 언론인 자체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교에 대한 편향된 종교관과 민족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이나은 기자

4대강 곳곳에서 민족문화수호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 낙단보서 1080배 정진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위원장 영담)는 2월 18일 낙동강 마애불이 발견된 낙단보 공사현장을 비롯해 4대강 일대에서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 및 생명살림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낙단보에서 진행된 1080배 정진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비롯해 의성 고운사, 구미 원각사, 대둔사 등 지역사찰 불자 총 3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진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이 강줄기 자리 자리에는 그동안 뭇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보살들의 원력이 녹아 있다.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되새기고 또 여기에 낙단보 마애부처님이 나투신 뜻을 되돌아보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 정부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재 보호 및 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식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정진에 참가한 500여 사부대중은 입재에 앞선 발원문에서 뭇 생명의 존엄과 가치와 소중한 문화자산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발원했다.

이날 민족문화수호위의 1080배 정진에 앞선 12일에는 부천 석왕사가 낙단보에서, 14일에는 하동 쌍계사가 영산강 일대에서, 17일에는 평창 월정사가 대관령 알펜시아에서, 17일에는 서울 도선사가 남한강 중앙탑에서, 18일에는 서울 조계사,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가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각각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민족문화수호를 발원하고 있다.

5대결사 점검② 문화결사

'과거'에 멈춰버린 문화결사의 시계추

전통 문화 비중 지나쳐 현대적 발전 방해 지적

조계종의 5대 결사 중 하나인 문화결사에는 ▷전통문화 보존정책 수립(규제법령 폐지 및 개정) ▷전통문화 관련 현안 대응 ▷민족문화 보존 범국민 캠페인(훼손 문화재 복원 모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문화결사 주요 내용을 놓고 불교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전통문화 일변도의 문화 결사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전통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올해로 조성 1000년을 맞는 대장경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전통문화 현안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결사에 이런 것을 제시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문화결사에서 중요한 것이 기득권 포기라고 강조하면서, 종단의 결단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영국 위원은 "전통문화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법령 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각 법령에 따른 지원도 축소된다. 결국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종단이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라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승가대 교육을 개편해 현대 스님들도 스스로 불교 문화재를 유지·보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문화재 보존·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은 올해 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각종 축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정작 조계종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축제 조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을 뿐 종단이 대장경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결사와 관련해 문화부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계획안에는 '지역 불교 문화재 관심 갖기' '일상 용품 불교문화상품으로 사용하기' '불서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조계종 문화부 심주완 팀장은 "문화결사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프로그램에서 보완된다. 대장경은 문화부에서 전시회를 논의 중이며 5대 결사가 확정된 뒤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내 욕심 버려야 다른이와 화합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 산 스님 "5대결사 잘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 스님이 종단이 진행 중인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고산 스님은 2월 16일 하동 쌍계사 방장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이라면 결사는 당연한 것으로 이번 결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으로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수행 없이는 계정혜 삼학도 없다. 5대 결사 중 수행결사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는 것과 같다"며 "5대 결사 중 수행결사를 강조했다.

고산 스님은 사자를 죽이는 '사자충'을 예로 들며 결사에 앞서 종단 내부의 결속과 단결도 강조했다.

스님은 "모든 일은 제 욕심만 채우려하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한다. 욕심을 없애는 일이 바로 평화"라며 총무원장 재임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명동성당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펼친 화동책을 소개했다.

고산 스님은 "내 욕심을 버려야 다른 이와 유대를 쌓아 화합하고 평화가 도래한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동국대 이사 정련·호성 스님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현 이사장 정련 스님(내원정사 주지)과 호성 스님(고운사 주지)이 선임됐다.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2월 15일 제258차 이사회의를 열고 7일로 임기 만료된 개방이사 혜림 스님 후임으로 호성 스님을 선임하고, 3월 11일 임기만료되는 정련 스님은 재선임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혜림 스님 후임 이사 후보로 호성 스님과 정념 스님(낙산사 회주)를, 정련 스님 후임 이사후보로는 정련 스님과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추천한 바 있다.

회의 전 이사 후보인 정념·정인 스님이 이사 후보를 사퇴한데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동국대 이사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동국대 차기 이사장 선출은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정련 스님의 재임이 유력하다.

조동섭 기자



정련 스님



호성 스님

박구원 만평



서울불교문화대학
Seoul Buddhist Culture College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승가학과(2년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스님들께 수행의 바쁜 일정 속에서 불교 교육의 원을 실천하여, 체계적인 불교사상과 의식을 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에서 5기 승가학과 학인을 모집합니다.
강원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강의와 교계 최우수 교수진으로, 스님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들을 선정하였고 2011년 원전강독과 훨씬 보강된 불교의식 교육을 선보일 본 대학의 입학을 스님들께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법화경강의, 근본불교사상, 불교의식,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법화경강의, 인도불교사, 불교의식, 대승기신론
2학년	법화경강의, 중국불교사, 불교의식, 금강경강의, 유식·중관학	법화경강의, 천태소지관(원전강독), 화엄사상, 불교의식
특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대승기신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상담론	

※졸업자격 : 50% 이상 출석한 분만 졸업가능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 출석체크)

▶ 강의시간표 (1학년 1학기)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 20분				법화경 입문	불교경전개요	초발심자경문
2교시	오후 3시30분 ~ 5시				불교의식	근본불교	

■ 신입생 모집 : 총 60명 ■

구분	주간반 30명	인터넷반 30명
수업료	53만원(한 학기 분)	55만원(한 학기 분)
	입학금 10만원(입학시 1번만 납입)	

※주간반 개근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 성직자 교육을 원하시는 모든 승려, 법사, 행자(단, 은사 추천 시)
▶ 특 전 : 1) 2학년 과정 이수 후 일본 유수 불교대학 입학 추천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불교학과(6개월과정) 주간반 / 인터넷반

일반불자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불교' 라는 교육이념 아래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일반인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7기 졸업생 500여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 불교를 바르게 알고 알리는 불자들을 양성하는 본 대학에 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 마땅히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일깨워 줄 소중한 인연도량에 입학을 추천합니다.

■ 교육과정 소개 ■

▶ 교과목 소개 - 6개월 과정

교 과 목	강의 소개
근본불교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불교를 학문적, 철학적 논리로 보면서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강좌
불교신행강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신행의 가르침을 안내해 드리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 강좌
불교문화와사회	불교가 우주를 포섭하고 있음을 기초 교리에서 공부했다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좌

▶ 강의 시간표 - 주간반 기준

구분	시 간	월	화	수	목	금	
						1,3,5주	2,4주
1교시	오후 2시~3시20분					불교신행강좌	불교문화와 사회
2교시	오후 3시30분~5시					근본불교 / 인도불교사	

■ 신입생 모집 : 총 120명 ■

구분	주간반 60명	인터넷반 60명
수업료	9만원	9만원

※인터넷반은 인터넷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바른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

■ 교수진 소개 ■

교 과 목	교 수	소 개
대승기신론	이평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역임
법화경 강의	박 종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 동국대학 사범대학 부고 교사역임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역임, 현 동산불교대학 교수
근본불교, 금강경	최봉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인터넷 불교대학 지도교수
불교학개론 중국불교사	신규탁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 대학원 중국철학 석사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중국철학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불교의식 강의	혜담 스님	1992년 인간문화재 정지광 스님 법상좌 범패·장엄부문 문화재 이수자
초발심자경문	운산 스님	전 강원 강사, 원전강독 강의
유식·중관학	양승규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 대학원 불교학 석·박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 강의, 티벳불교 전공
경전개설	이동형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 대학원 금속공학 석·박사 신락원(信樂苑)에서 매주 법화경 강의
불교신행강좌	여여 스님	불교학과 불교신행, 불교문화와 사회 강의
특 강	홍파학장님을 비롯한 교계 최상의 선지식, 교수진을 모신 강의 - 경장, 율장, 논장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강의 주제에 맞는 선지식과 교수진 초청 예정	

■ 접수 안내 ■

▶ 접수기간 : 2011년 3월 8일 까지
▶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1부 2)주민등록등본 1통 3)사진(반명함판) 2매
▶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입학일시 : 2011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 원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1) 교 학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우)110-550
2) 연 락 처 : 관음종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 교학국
Tel 02)763-3001(9909) Fax 02)763-5851
3) 홈페이지 : http://www.seoulbcc.kr (입학원서 다운가능)
4) E-mail : yeodiamond@naver.com madgod@empal.com

마애불 진실게임, 조계종·문화재청 공방

조계종, 문화재청 해명에 정면 반박… 마지막 요구 전달 "진정성 보여라"


최광식 문화재청장


문화부장 효탄 스님

낙단보 마애불 훼손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은 2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해명에 커다란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하루 전 열린 문화재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재청은 우리가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0일 조계종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의 존재를 8월에 인지하고도 10월에 발표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의도적 훼손 ▷제2 마애불 제보 은폐 등 각 종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16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조계종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할 수 없고 향후 철저한 조사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제2 마애불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해 발견된 마애불 주변에 통합관리센터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을 설치한다고 밝혀 조계종을 자극했다.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낙단보 마애불의 발견시점, 훼손 경위, 제2 마애불 가능성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의 입장 표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4대강 주변 문화재 재조사와 제2마애불 발굴을 위한 방안, 문화관 · 전력관리동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이번 요구에 따른 문화재청의 태도를 확인한 뒤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발견시점= 지난 해 마애불 발견될 당시 문화재청은 10월 6일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단의 현장 조사 결과 지난 해 8월 이미 의성군청이 마애불의 존재를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계종은 2010년 12월부터 낙단보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주민 탐문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놓고 조계종은 국민과 종교지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마애불 훼손을 방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8월 4일 의성군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제보 내용만으로 마애불의 존재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제보 지점에 4대강 공사 개발 계획이 없어 의성군이 문화재청 보고없이 자체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발견 지점에 대한 공사가 지난해 10월 시작됐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일을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 시공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의적 훼손= 지난해 마애불 발견 이후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설계 변경, 마애불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해 8월 이미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도, 10월이 지나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청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4대강 공사에서 문화재의 훼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종의 마애불 고의적 훼손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은 작업 공정과 경위를 살펴 볼 때 의도적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옹벽 시공 중 천공작업 과정에서 마애불이 발견됐다. 옹벽 시공을 위해 토석을 모두 제거할 경우 도로 붕괴 위험이 있어 지반확인용 드릴로 천공했다. 결과적으로 4번째 천공작업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마애불 발견에 앞서 제기된 주민들의 제보 지점은 정작 마애불이 발견된 지점과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보를 묵살해 훼손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 마애불 가능성=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제2 마애불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도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추가 존재 가능성 자체를 은폐하려는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지난 해 발굴된 마애불 주변에 통합관리센터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은 추가 발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지난 해 발견된 마애불처럼 또 다시 훼손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제2 마애불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은 "상식적인 사실조차 간과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증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난해 마애불이 발견되면서 주변에 굴착을 실시했으나 추가 마애불 존재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도로차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시간적 · 경제적 부담 등을 어려움을 제기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이나은 기자의 지금 부루나에서는

이계진 前 의원, 길상사 출입 막을까 말까

28일 법정 스님 추모법회 앞두고 의견 분분

조계종은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종무행정 세부지침'을 통해 각종 불교행사에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월 28일 오전 11시 길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제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前 의원은 법정 스님이 설립한 맑고향기롭게 이사이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계진 前 의원의 법정 스님 추모법회 참석 여부에 대한 법석이 열렸다.

A씨는 "이계진 前 의원은 스스로 불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해 불교계를 곤란케 한다면 그분 스스로가 법정 스님 추모 법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불자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그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존경하는 법정 스님 추모법회가 정치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스님을 추모하는 방법은 법회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내가 만약 이계진 前 의원이라면 의전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고 법회 관계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대중 속에서 한 개인으로 스님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진 前 의원이 추모법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B씨는 "이 前 의원의 불자로서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정계 진출보다 먼저 이뤄졌다. 이계진 前 의원은 맑고 향기롭게 이사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한 스님은 "언제부터 사찰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았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출입은 당연히 막지 말아야 한다"며 "길상사에서는 당연히 이계진 前 의원을 맑고향기롭게 이사로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상사 관계자는 "조계종이 시달한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의 출입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계진 前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특수한 경우라 방침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특별칼럼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한국에서 문인들이 사망하면 정부가 훈장을 주고, 남은 유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서훈을 받는다. 서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을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시대의 민중들의 가슴에 남아서, 그들이 "고마운 존재"였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국가가 아니라 민중이 인정해주는 것을 더 기뻐해주는 정신적 지도자, 난 그런 사람이 늘 아쉬웠다. 샤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하면서 정말로 민중들의 철학자가 되었던 사례, 그런 걸 한 번 보고 싶었다.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그 생각이 다시 한 번 났다. 남기지 말라시면서 '말빚'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은 솔직히 충격적이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마치 그림의 가치가 화가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공급이 중단된 재화는 희귀재의 품목에 올라가 일반 상품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게 된다. 소유하지 말라고 말 한 책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진귀한 경험이다. 그러나 뭐든지 소유하면 된다고 하는 이 경제 근본주의의 시대에 무소유의 가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반가운 일이기만 하다.

경제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무소유' 같은 고귀한 가치를 아직은 말해보지 못했다. 그런 높은 수준의 정신단계에 도달해 보지 못했고, 내가 끝까지 얘기를 밀고 가서 하는 얘기가, "삶이라는 건 입에 세 끼 밥 들어가면 된다"는 수준의 얘기 정도이다.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의 입에 세 끼 밥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 입에도 세 끼 밥이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풍요가 있는가? 그것을 나는 '가늘고 길게'라고 표현한다. 가늘게 살면, 삶이 길어진다. 많은 사람은 '굵고 길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굵고 짧게' 살게 된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렇게 경제적 가치를 극대로 끌고 가지 않고 자치나 문화적 가치 같은 것을 높게 치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혹은 스웨덴 같은 나라가 실제로는 국민소득 6만불을 넘어간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경제 근본주의의 클라이막스 시절에 생각해보는 아이러니이다.

원래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한 배우자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 이건 법정 스님 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한 가치이다.

도서관이나 공원, 공공 체육시설처럼 공유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절반 정도가 이런 공유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회, 그게 경제학자로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지금의 맥락에서 해석해본 경제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에 98%의 아동이 사교육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유의 욕심이 자식으로 투사되면, 우리는 지옥을 만들게 된다. 그들을 위한 공공재는? 아이들을 뛰어놀 게 해 줄 골목을 잃어버린 지금, 소유하고자 하나 결국 손에 잡히는 것 없는 너무 허망한 시대이다.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책으로 이어지는 무소유 신드롬

법정 스님 가르침 담은 책 속속 출간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는 스님의 유언이 세상에 공개되자 법정 스님의 책들은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스님이 직접 쓴 책들을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지만,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써 내려간 글들이 출판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법정 기행〉은 스님의 발자취가 깃든 11곳의 법정 순례길을 따라 나를 찾아가는 마음 치유 기행서다.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불일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기행 길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무소유 잠언집〉의 편저자 김세중은 부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자 했던 법정 스님의 행동과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법정기행 | 이시현 지음 | 마더북스 | 1만4800원
무소유 잠언집 | 김세중 편저 | 휘닉스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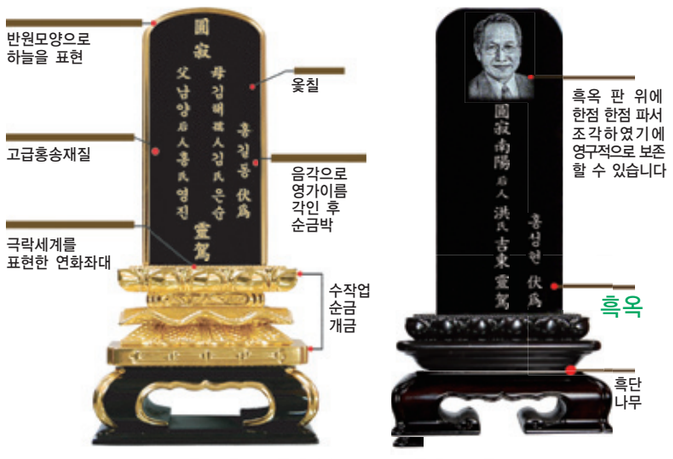
이은정 기자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황금영구위패는? ※디자인특허※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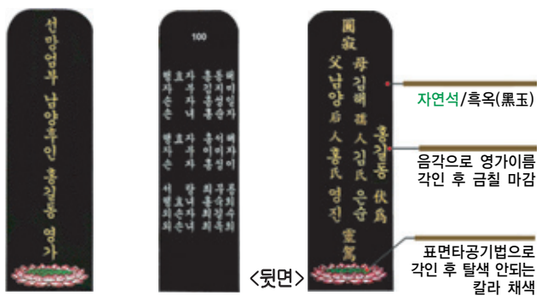

<안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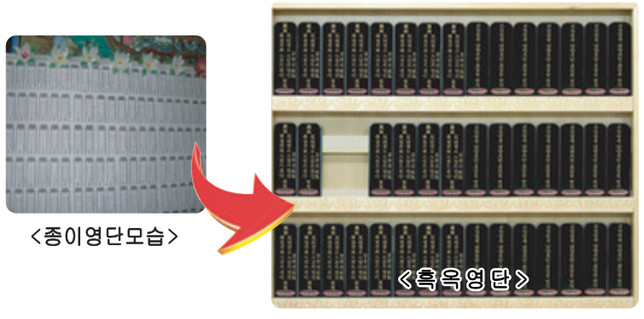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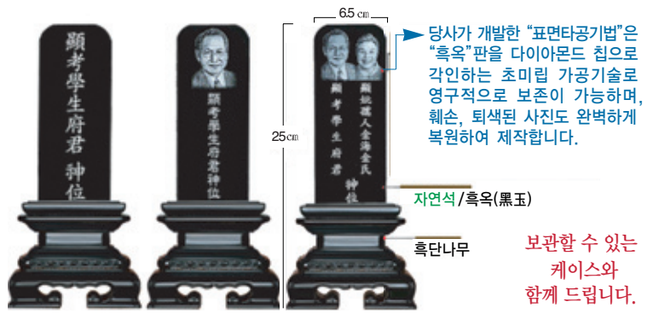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

일 주 문



진각종, 부처님 열반절 기념불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2월 15일 전국심인당에서 '부처님 열반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3월 10일 템플스테이 교유고간인 불교수행 교육관 능인전을 개관한다.



조계사 선림원 입학식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3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선림원 입학식 및 개원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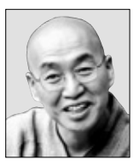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3·1절을 맞아 3월 1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를 진행한다. (031)768-0064



원혜 스님 대전청 경승실장 위촉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2월 10일 대전지방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마주협 2011 정기총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은 2월 24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평화재단 평화리더십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2011년 3월 10일~ 6월 9일 제4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운문사 법계장학금 전달식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 스님은 2월 16일 운문사에서 제9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혜인 스님 등 6명에게 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우치과 구강건강 캠페인
정미화 연우치과 원장은 2월 15일부터 스님, 조계종 새 신도증을 소지한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캠페인 실시한다. (02)733-1034



불교여성개발원 GEP 사업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3월 12일~5월 21일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젝트(GEP)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봉사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기도합시다

'불광사김밥가게' 개업 앞둔 보 광 스님



"주위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이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뤄내는 것이에요.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누군가 소원을 이뤄줄 것이라고 믿지만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일어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5월 '(가칭)불광사김밥가게'를 개업한다. 더욱 많은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광사는 넉넉지 않은 작은 암자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김밥가게는 지난 3년간 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나눔과 무료급식 등 자비나눔의 결실이자 더 큰 나눔을 위한 씨앗이다.

"갈수록 정진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3년간 옛 선사스님들의 치열한 수행의지를 되새기며 신도들과 함께 5대 적멸보궁 십보일배 순례기도를 했습니다. 문득 순례하며 느낀 환희심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광 스님은 2009~2010년 겨울 전국 5대 적멸보궁을 십보일배 순례기도로 수행을 게을리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 약 750km에 이르는 길 위에서 150여 일간의 십보일배 순례기도에서 돌아온 스님은 강행군으로 약해진 몸을 추스른 뒤 바로 지역 내 홀로어르신 가정을 찾아 반찬배달을 시작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입구 무료급식소에서 월 2회 대중공양을 대접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본래 기도의 '원(願)'과 봉사의 '행(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치열한 자기 수행 뒤에 따르는 환희심을 이웃을 위한 자비행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보광 스님은 봉사활동을 이어갈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음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부족한 봉사활동기금 마련을 위해 제과제빵학원에 등록해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5월 개점할 '불광사김밥가게'도 부족한 봉사활동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다.

"불광사가 있는 초읍동은 번화가인 서면과 근접하지만, 무너져 내리기 일보직전의 판잣집도 있고 홀로어르신은 7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0가구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김밥가게 수익금 전액을 봉사활동에 쓴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환희심이 듭니다."

보광 스님은 앞으로 반찬배달을 2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하고, 월 1회 부산역 광장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공양할 계획이다. (051)809-1420

제일은행 이정민 510-20-215356

박지원 기자

젊은 여성불자 중심 회원 배가운동 펼칠 터

한 재 숙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7대 신임회장

"여성불자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참여회원 7000여 명으로 확대, 육아교육·방과후 학교·가사돕기·여성일자리 창출 등 여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재숙(63,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前 위덕대 총장이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7대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한재숙 신임회장은 참여회원 배가 운동, 다종교 사회의 조화와 성숙을 위한 세미나, 종파를 초월한 연대사업, 녹생환경 구현,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10~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성불자들이 사회의 주류 리더양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교육사업은 국가시책이나 세계흐름에 긴밀하게 대처하고, 서울시와 여성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젊은 여성불자 영입에도 나선다. 사회활동에 대한 심화 교육과 육아와 가정생활 등에 대한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회원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사에 신경 쓰지 못해 생기는 공백을 노년층의 기존 회원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여성들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마음을 열고 종교간 소통에 나선다면 종교간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북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여성불교연합회는 다종교와 관련해 제7차 여성교류대회 및 해외불교와 연대사업을 실시하고, 주요종교단체와 다종교 사회의 성숙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및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진력을 잃지 않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 자세, 인연법을 명심하여 작은 인연도 소중히 지켜가기를 서원하는 자세로 부처님 향기가 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재숙 신임회장은 진각종 창종주 회당 대종사의 조카며느리로 불심이 깊고 수행 생활이 몸에 베어있다.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남대 생활과학 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회장, 2004~2008년 위덕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만발공양비 이주민노동자에 회향

양주 청련사(1月 안정사) 주지 백 우 스님



"모든 중생들이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다."

1200여 년간 서울 하왕십리에 자리했던 신라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주지 백우)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으로 도량을 옮긴 뒤 첫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백우 스님은 2월 17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동안거 해제 법어를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동안거 수행의 공덕을 삼처에 회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스님은 신도들이 올린 '만발공양비' 200만원을 모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양주시청에 지원 대상 이주노동자 섭외를 요청했다.

백우 스님은 이번 성금 기탁을 한 배경에 대해 "방송, 언론매체 등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소식을 보고 그분들이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생이 좁게 보면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지만 넓고 크게 보면 고난에 처한 중생을 구하는 것도 방생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뜻을 모아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안거 기간 동안 청련사 스님들은 안거에 참여하는 신도들과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전통 발우공양을 했다.

백우 스님은 "스님은 수행을 근본으로 한다. 우리가 부처님과 신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생활하자는 각오로 발우공양의 의미를 새기며 안거 정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련사는 1200년 역사를 왕십리에 두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전통을 가진 사찰이 이번 안거를 통해 실력과 능력 모두 스님다운 스님의 사찰, 중생들의 교화도량이자 의지처로 거듭나는 사찰이 되기를 발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청련사는 올해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백우 스님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을 의지하고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준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우 스님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와 도림 선사의 유명한 일화를 들려줬다.

스님은 "백거이는 도림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라고 묻자 도림 선사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라고 대답했다"며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무명에서 해탈할 수 있다. 무상의 도리를 알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입장을 바꾸어 상대를 생각하면 쉽게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련사는 12만 5000㎡(3만 8000평)의 대지에 대웅전과 대적광전, 관음전, 원통보전, 삼성각 등을 갖춘 대규모 태고종 사찰로 신라 흥덕왕 2년(827년)에 창건된 사찰로 전해진다. 그러다 청련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커지면서 2005년 도량이전을 결정하고 중창불사를 했다.

또한 안정불교대학을 설립한 청련사는 2011학년도 전통강원, 범패학과 신입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개강은 3월 7일이며 입학식은 3월 14일에 진행된다.

안정불교대학 초대 학장인 백우 스님은 "선암사 강주를 역임한 운범 스님과 범패학을 전문으로 하는 상진, 일원 스님 등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범패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했다"며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031)836-0827

이나은 기자

2011학년도 안정불교대학(전통강원/범패학과) 신입생 모집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체득케 하고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한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지니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하는 참된 불제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량으로써 신라 천년고찰인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기존의 범패학과와 더불어 전통강원의 전 교과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교육과 수행풍토의 진작을 통해 참다운 부처님 나라를 건설할 불교인재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입학 응시를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범패학과 (범음·범패)

학기 \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 초 : 목탁 잡고 치는법, 요령흔드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오분향례, 칠정례, 각단 조석 예불 불 공 : 삼보통청 외 각단 불공의식 시 식 : 상용영반, 관음시식, 화음시식, 구병시식 송경의식 : 입관, 발인, 화장의식, 매장의식, 반혼재의식 등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작 법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막바라) 태징치는 법, 북치는 법
2학년	-천도의식 본 과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옹호게, 봉청, 39위), 지장청(상단),신중퇴공, 관음시식, 공덕게, 봉송, 회향 ※헌좌게소리, 다게작법, 인성이소리, 관욕태징(관욕바라), 화의재바라, 거불, 욕건이(소리춤), 특사가지, 사다라니바라, 운심게(소리춤), 가지게(태징), 화청, 축원화청	-시연회준비-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및 법주, 바라지)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특강 :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 기타 의식 등에 관한 실기 및 설명

2. 교육과정 : 전통강원

학기 \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치문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2학년(사집반)	도서, 서장	절요, 선요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하세요.

3. 전통강원과 범패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며 전통강원과정이나 범패학과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4. 입학 안내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1년 3월 7일(월) 오후 3시~6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14일
- 강 주 : 전통강원-운범스님
  범패학과-상진스님 / 범패학과강사-일원스님
- 수업시간 : 범패학과-① 매주 월요일 오후3시~ 6시까지(기초과정)
  ② 매주 화요일 오후3시~ 8시까지(전문과정)
  전통강원-매주 수요일 오후2시~ 5시까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장소 : 본 대학 강의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입학원서(본교 교학처에서 교부, 작성), 태고종승려 승적증명서 1부
- 강의과정 : 2년 과정(4학기) (전통강원·범패학과)
- 접수기간 : 수시접수(편입생은 시험 결과에 따라 등록 가능)
- 접 수 처 : 안정불교대학 교학처≪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80번지
- 문 의 처 : ☎ 031-836-0827

안정불교대학 학장 이백우

법정 스님은 말·글·행동이 일치하는 참 선승

맏상좌 덕조 스님을 만나다

"헉…헉…헉….(쿵덕쿵덕쿵덕)."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숲길에서 호흡과 조급한 심장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스님과 약속시간보다 40여 분이 늦었으니 할 말은 없는 처지지만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찍어본다. 겨우 전화 연결만 될 뿐 상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노랗다 못해 하얗다.

"천천히 오세요!!! 불일암은 핸폰이 안됩니다!!!"

순천 송광사 불일암 덕조 스님의 문자 한 통에 기자 둘이 살아났다. 안심법문이 따로 없었다. 법정 스님의 맏상좌다. 시간관념 철저하기로 소문난 그 스승에 그 제자일 것이라. 걸음을 재촉해본다.

법정 스님 열반 후 두 차례 안거가 지났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월 17일 동안거 해제 날 불일암에서 덕조 스님을 만났다. 법정 스님은 '상좌들 보아라' 는 유언에 맏상좌에게 10년간 오로지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송광사 문수전에서 동안거를 마친 덕조 스님은 살짝 야위었다. 약속시간을 훌쩍 넘었지만 스님은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라며 따뜻하게 객을 맞이했다.

불일암은 봄기운이 만연했다. 법정 스님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7년간 길들여 놓은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암자 곳곳의 잔디가 사라졌다. 불일암으로 올라가는 운치 좋았던 길은 넓어지고 파이는 등 피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은사 스님이 가시고 나서 정말 번다해졌죠. 사람들은 불일암이 스님들의 수행공간이고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유적지를 방문하는 듯해요. 관광 코스 아닌 관광 코스가 된 거죠. 스님의 체취를 느끼려고 오는 손님들을 문전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스님을 시봉하는 거니까 이곳에 사는 거죠."

덕조 스님은 '스님이 주고 간 큰 숙제' 라며 오히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손수 만든 빠삐용 의자 위에 방명록을 쓰도록 하고 책갈피와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5만 장의 책갈피가 나갔다고 하니,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불일암을 찾은 꼴이다. 그 소음과 번다함은 어떠할까.

빠삐용 의자에서 3m 떨어진 곳에는 법정 스님이 아끼던 후박나무가 있었다. 스님의 유골이 뿌려진 후박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갈까 염려해 덕조 스님이 손수 대나무로 둘레를 쳐 놨다. 스님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었다.

불일암 내부는 '텅 빈' 공간이었다. '정갈' 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자의 표현이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수행공간에는 상좌들의 출입도 일절 금했었다. 청소부터 모든 것을 스님은 손수 했다. 오로지 수행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덕조 스님은 아직도 스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양간으로 난 뒷문을 사용했다.

"지금도 스님을 생각하면 긴장이 돼요."



2평 남짓한 공간의 다실. 군불을 때고 있지만 싸늘했다.

법정 스님에게 우편물을 전해주던 행자 시절을 떠올리는 스님의 눈에 긴장감이 돌았다. 깐깐한 법정 스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영광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어렵고 긴장된 시간이기도 했다.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는 스님은 당신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시간을 어기는 것을 용서치 않았다. 홀로 수행정진을 함에 있어 철저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 수행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부름 외에도 청소하고 시봉을 하는데, 스님은 딱 한번만 시범을 보이시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셨죠. 어른에게 두 번 묻는다는 것은 없거든요. 해내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긴장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세납 52세가 돼 덕조 스님을 첫 상좌로 뒀다. 덕조 스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상좌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스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언제 가장 그리우신가요?"
"바로 지금요…"

"시절인연이 된 것이겠죠. 감히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송광사 행자 생활을 하면서 각오했죠. 안되면 재수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실 때까지 하겠다고요."

법정 스님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해야 할 정도로 가장 무서운 스님이었다. 그 이면은 스님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법정 스님은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 선승이었다. 행자 시절이었다. 새벽 3시 동지 팥죽을 주전자에 담아 큰 절에서 불일암까지 부리나케 들고 뛰어 올라왔다. 스님은 정진 중이었다. 또 신도들과 차를 마시다가도 예불 시간이 되면 스님은 어김없이 예불을 올렸고, 병상에 있을 때도 스님은 예불을 올렸다.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에서도 홀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청규에 따라 결제와 해제를 했다.

덕조 스님은 "공경심과 예경심으로 스님을 모셔온 것이 지금까지 여법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고 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라' 는 스님의 뜻에 따라 법정 스님의 일곱 상좌인 덕조(德祖), 덕인(德仁), 덕문(德門), 덕현(德賢), 덕운(德耘), 덕진(德眞), 덕일(德日) 스님은 제방 수행자로 어디 가서든 모범을 보인다.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 상좌라는 것이 수행자에게 좋은 배경이기도 하지만 일거수일투족 법정 스님이라는 꼬리표가 큰 부담이기도 하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 '출가 장부는 구속받지 않고 당당하며,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 는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조 스님은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다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출가 수행자라면 당당해야죠. 할 말은 하고 사는 거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에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원도에 주석하면서도 법정 스님은 해제 때가 되면 불일암을 찾았다. 상좌들과 차를 마시며 상좌들이 안거기간 중 어떻게 살았는지, 선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점검했다. 옛날 선방 이야기도 해주고 청규에 따른 수행자로서의 자세도 말씀했다. 스님은 언제 은사가 가장 그리울까?

"지금요… 아… 가슴 아프네요."

흘리듯 던진 질문에 스님의 눈가에는 촉촉해졌다.

"살아계시면 뵐 수 있는데 안 계시니… 그게 가슴 아파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가슴 아프죠. 그게 모르겠어요. 더구나 1주기가 다가오니."

애별리고(愛別離苦)가 스님을 스쳐가는 듯 했다. 법정 스님은 대중과 있을 때는 억새풀처럼 무섭고 날카로웠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전시회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었다. 덕조 스님은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저런 일들도 뭐든지 한번은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포교와 법정 스님의 뜻이라는 부분에서 상충하는 일들이 많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 법정 스님의 뜻을 오롯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이벤트성으로 변질돼 스님을 팔아먹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법정 스님의 눈빛을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뜻을 알아차렸던 상좌는 지금도 스님의 살아있는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덕조 스님에게 10년간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스님께서 항상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답게 살라' 고 했던 삶을 살아야죠. 10년 만 살겠어요?"

법정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번 해제때 최근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 결사, 개신교와의 끊임없는 종교갈등, 구제역 등의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말했을까.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도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다고 했다. 종교 간 갈등은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불교계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 긴장하지 않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응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세상은 본래 시끄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밖으로 토해내지는 것 뿐입니다. 내 문제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자기 의견을 대중의 의견이라 말하고 자신을 대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님은 시나브로 법정 스님의 모습을 닮아있었다.

덕조 스님은 오늘도 행자시절 법정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남들이 못하는 고생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삶,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삶을 사는 당당한 수행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다종교시대에 종교의
평화적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성직자들이 모여
6년 동안 진행한 토론 및 대화의 생생한 기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종교가 평화로워야 세상이 행복하다!
차이와 다름을 넘어 상호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종교간
평화적 공존과 소통의 미학!
● 종교인 대화 모임 참여자들
서종범(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김승혜(가톨릭 수녀)
전해주(동국대 불교학과) 양은용(원불교 교무)
길희성(종교학자) 이제민(가톨릭 신부)
이정배(개신교 목사) 최근덕(성균관장)
최일범(유학자) 한순희(가톨릭 수녀)
종교인 대화 모임 | 국판 변형 | 570쪽 | 값 23,000원

참다운 선지식이 되는 가르침
42분 옛 선사들이 통찰한 삶의 지혜와
수행의 곧은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책!
● 이 책은 수행자라면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이자, 납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나아갈 바를 일깨우는 장군죽비이다.
● 이 주해본은 각 법문에 대한 대의와 주해, 풍부한 해의와 각주를 통해 원문의 의미를 깊고 넓게 전달한다.
선림보훈 주해
선림에 내려오는 보배로운 교훈
이동형 편저 | 신국판 양장 | 840쪽 | 값 45,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윤남진의 시민사회&종교비평①

주류 개신교, 갈등전략 통할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최근 조계종 등 불교계는 헌법상 국가의 전통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주장을 주축으로 '민족문화창달론'을 주요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있다.

윤남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은 전통이나 민족문화에 대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전래 100년을 넘긴 기독교 문화도 일부분 우리 민족문화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지금의 종교적 갈등상황을 다뤄서는 안된다. 특히 자유민주정부 존립의 기초인 '시민적 관용과 불관용'의 문제로 종교적 갈등이 우리의 정치질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신교가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불교와 전방위적인 1:1 갈등관계를 부상시킬 모양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대구 팔공산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무산시킨 예가 그렇고, '템플스테이'에 대해 특정종교 포교지원이라며 비난하다가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처치스테이'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렇다.

나는 이런 주류 개신교계의 행동이 앞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전방위 갈등전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한다. 고의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고차원적인 선교전략이다. 그럴 수 있다고 냉정히 볼 수 있다.

주류 개신교가 '갈등전략'을 전면화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주류 개신교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전면적 갈등상황이 조성돼 사회적으로 다소간의 지탄을 받게 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기존 제품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확신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정치권력에서는 개신교계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을 것이다.

고교 시절부터 '좋은 그리스도교인들'과 교류해오고 있는 필자로서는 주류 개신교의 현재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통계적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한국의 개신교는 2002~2004년을 기점으로 선교의 정체 혹은 마이너스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의 실패 등이 겹치면서 미군정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저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수급조절이 안 되는 과도한 신학과 졸업생 수, 무인가 신학대학의 문제, 시스템교회 전략에 따른 교회의 대형화로 인한 소규모 교회의 목회환경 위축 등 개신교 내부의 경쟁상황이 한국사회 전체 종교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지만 개신교계로서는 충격적이었다. 1995년 인구센서스 조사 당시보다 개신교인의 절대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10년간 성장된 인구를 대입해 보았을 때 약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격이 된다.

1995년 대비 2005년의 전체 종교인구 증가는 237만명이었다. 여기에서 종교인구 중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 38.8%를 대입하면 종교인구 성장 분에서 92만 명이 늘어야 정상이고, 여기에 개신교인 절대인구 감소분 15만 명을 더하면 약102만 명이 감소한 결과가 된다.

사실상 2004년도에 이미 개신교계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04년 발간한 〈한국교회 미래리포트〉이다.

이 모임에 소속된 교회들의 면면을 보면 합리적인고 중도적인 성격의 교회들이라고 생각됐던 교회지도자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조사보고서에서조차 "최근들어 일어나고 있는 성시화운동(Holy Club Movement) 등에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기관장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표현은 완곡하지만 중요한 새시대 목회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4년 후, 드디어 장로대통령이 탄생하게 되고 정치권력과 개신교회의 융합은 필연적인 것이 된다. 〈계속〉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 봉사활동 꼭 필요"

15년 간 한 자리서 봉사활동 펼쳐온 김 용 수 어르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이웃들이 많다. 함께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는 매주 우리시대 '라후라존자'를 찾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들어본다.



"봉사는 사람을 만듭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나죠."

김용수(72 · 사진) 어르신은 15년째 묵묵히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72세라는 나이를 의심케 한다. 김 어르신은 '2010년 한국불교 자비나눔 축제'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르신은 1997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묘희원'에서 15년 가량 목욕 봉사를 이어왔다.

"묘희원에서 생활하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의 선지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용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 갑상선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한 때 몸무게가 30kg까지 내려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몸이 아플 때 어르신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는 어르신의 삶을 바꿔놓았다.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참여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침데기 같던 성격도 여유로워지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김 어르신은 현재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다.

"봉사활동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나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종교까지 바꾼 친구들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한 삶의 변화가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 어르신은 불공을 올리고 법회에 참여할 시간을 줄이더라도 꼭 봉사활동에 참여하라고 강조한다. 본인도 15년 동안 한 번도 봉사활동에 빠지거나 늦어본 일이 없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쑥스러워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김용수 어르신을 만나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김 어르신은 봉사활동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간에 그만두면 봉사를 받던 사람들도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자신 밖에 모르는 요즘 아이들에게 봉사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조계종자원봉사단 팀장을 맡고 있는 어르신은 앞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김용수 어르신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도 젊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꾸준히 오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아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하면 봉사활동이 누구를 위한 활동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정월대보름 이웃들과 함께 온정 나눠

불교계 다양한 행사 마련

정월대보름 행사가 불교계 곳곳에서 펼쳐졌다.

서울 성북구 화계사(주지 수암)에서는 2월 16일 '제5회 달집태우기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가수들의 공연과 소원지 적기, 달집 태우기 등이 진행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15일 3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세시풍속 행사 '어화 둥실 보름달이로세'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신묘년을 맞이해 마련된 '福토끼와 함께 정월대보름 체험하기'와 각 종 민속놀이를 즐겼다.

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17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200여명과 속초시효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50명에게 대보름 부럼을 나눠줬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소속 40여개 사찰 스님과 신도 2000여 명은 17일 오후 포항 화진 해수욕장에서 구제역 희생가축 천도와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은정 기자,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사로 인한 갈등 이제 그만!

포교원, 2월 25일 불교식 가정제사 표준화 공청회 열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불교식 가정제사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포교원은 2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44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불교식 가정 제사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공청회는 시연회와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발간 계획 중인 〈불교 상 · 제례 안내서〉에 따른 '불교식 가정제사(명절차례)' 시연회를 선보인다.

2 · 3부에서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합한 불교식 제사 표준 지침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연꽃마을, 스님간병비 지원 사업 결과보고

모금액 8000여 만원 집계… 26명 스님과 가족에게 4900여 만 원 지원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2009년 9월부터 진행된 '스님 및 스님 부모님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2월 14일 발표했다.

연꽃마을은 후원성금으로 이루어진 모금액 8000여 만원을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6명의 스님과 스님 부모님에게 49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각현 스님은 사업초기에 사부대중의 후원이 늘어나면 스님들의 간병비와 요양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연꽃마을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2010년 1월부터 스님에 대한 간병비 및 요양비 지원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031)898-1486 이나은 기자

각 사찰 폭설 피해 '이상 무'

강원도·부산 교구본사들 현황점검… 군, 지자체 협조로 재설

동해, 삼척, 부산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해당 지역 본 · 말사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인 2월 12일과 13일 사이에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는 최고 1m가 넘는 눈이 내렸다. 부산에도 최고 16cm가량의 눈이 쌓였다. 폭설이 계속되자 각 교구본사들도 말사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진출입로에 눈이 쌓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訃 告

(圓) 曺溪宗 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 敎區葬 (寂)

大韓佛敎曺溪宗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 2555(2011)年 2月 17日(陰 1月 15日) 午後 5時 23分 京畿道
華城市 萬儀寺에서 法臘 53年, 歲壽 73世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焚 香 所 : 萬 儀 寺 (京畿道 華城市 東灘面 中里 140)
◆ 永訣日時 : 佛紀 2555(2011)年 2月 21日 (陰 1月 19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龍珠寺 (京畿道 華城市 松山洞 188)
◆ 問議 및 連絡處 : 萬 儀 寺 031)376-6005

大韓佛敎曺溪宗 元老 竹庵堂 正樂 大律師 敎區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第2敎區本寺 龍珠寺 住持 正乎

門徒代表 性直 合掌

한국불교 전통의례 수강생 모집

안채비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일용의식의 정착과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의 계승 · 복원 · 발전을 위해 전통 의례를 전승할 뜻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교 수 진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장 동주원명
_ 불교 의식 전공 이수자
_ 불교 의식 및 음악학 관련 박사학위자

● 교육내용 1. 일용 권공 의식(상용의식 · 상주권공 · 안채비 · 홑소리)
2. 의식진행을 위한 법구 연주(금고 · 태징 · 법고 · 호적 및 장단)
3. 한국 불교 전통 재 의식(영산재 · 수륙재 · 예수재 · 시왕재)
4. 한국 불교 전통 의식무(바라무 · 법고무 · 나비무)

▮ 자격기준 _ 비구 · 비구니
▮ 교육기간 _ 이수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
▮ 개 강 _ 2011년 3월 2일 오후 2시
▮ 교육일시 _ 매주 1회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_ 2011년 3월 2일(수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주관 _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 · 범패 · 작법 보존회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

삼학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해제 아닌 결제중

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 일제히 동안거 해제, 2242명 수좌에 방장 스님들 법어로 격려

지난해 음력 10월 15일부터 3개월 간 화두 참구에 들었던 수행 납자들이 2월 17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가부좌를 풀고 만행길에 올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인년(庚寅年) 동안거(冬安居) 선사방함록(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총 2242명(비구 1202명, 비구니 826명, 총림 214명)의 스님들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 안목을 얻었을 때 법문이 낙처를 얻는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일척안(一隻眼)으로 실상을 꿰뚫어보라!

몽둥이 아래의 일척안이여
조주선사에게 한 납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설봉 선사의 회상에서 옵니다”
“선사께서는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선사께서 ‘시방세계전체가 모두 실상을 꿰뚫어보는 납자의 일척안(一隻眼)인데,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은 어디에 똥을 누겠는가?’ 라고 하십디다”

이 말을 듣고서 조주 선사께서 말씀했습니다.
“자네가 다시 그 회상으로 갈 때에는 설봉 스님에게 드릴 삽 한 자루를 들려서 보내겠다.”

제대로 일척안(一隻眼:올바른 눈)을 가진 납자가 본다면 티끌 한 개가 날리면 온 하늘이 가려짐을 압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개가 떨어지면 대지전체를 덮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꽃 한송이가 피면 부처님이 나타나신 줄 알고 잎새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에 가을이 온 줄을 압니다.

제대로 안목을 갖춘 이가 바라보면 낱낱의 사물마다 낱낱의 존재마다 분명하고 뚜렷함으로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현상에는 갖가지 차별이 있지만 이치는 하나의 법도로 귀착됨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방으로 통하는 눈을 가진 뛰어난 종사라야 비로소 이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안목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이 법문의 제대로 된 낙처(落處)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설봉 선사의 ‘시방세계 전체가 모두 실상을 꿰뚫어보는 납자의 일척안인데,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은 어디에 똥을 누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조주선사는 ‘설봉에게 삽 한 자루를 보내야겠다’ 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된 안목을 지닌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해제 시 만행할 때에도 반드시 이 화두를 참구하면서 행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丹山生鳳凰하고 獅子產俊猊로다
棒下一隻眼이여 徒誇第一機니라
단산에는 봉황새가 나고 사자는 무서운 새끼를 낳는도다.
몽둥이 아래의 일척안이여! 부질없이 제일의 기봉을 자랑하는구나.



“바로 지금 손에 쥔 마음이 만법의 근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不滅燈兮長明燈 人人皆皆人人燈 長明燈兮不滅燈 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고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사람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기리 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어라

조계산색은 어제 같이 산방을 열어 놓는 평상심 일진데 길 떠나려는 그대들의 손에도 어제 같은 산색은 도가 되어 물들어 있는가?

숭산의 전법원에서 남악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도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좌선을 하십니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날 남악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도일 스님의 방문 앞에서 기와장을 숫돌에 갈고 있었더니 이를 보고 도일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얼 하시려고 기와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어 보려고합니다.” “기와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좌선을 해서는 어찌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까?” 도일 스님은 이 말씀에서 깨우침을 얻어 남악 스님의 수제자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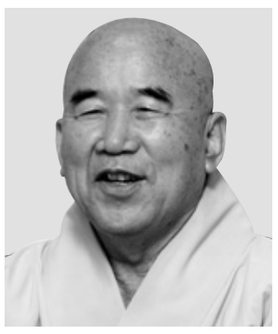
지음이 없고 희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범성, 단상이 없는 평상심, 일체가 모두 이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바로 지금 손에 쥔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로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상심이 도이며 있는 그대로가 법계임을 알아 능인의 자량을 사해에 전하기 위한 먼 길을 떠나야합니다.

전법도생을 실천하지 않는 깨달음, 혼자만의 도심은 행원을 중생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약함일뿐입니다. 용맹심으로 산문을 나설 때입니다.

우리는 늘 합장을 합니다. 이것은 서원이며, 수행입니다. “자타불이, 자타가 본래 하나이거니 근본으로 부터 하나로 성취하라.”

“자성의 거울을 비춰보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日月爲燈燈不盡이요
乾坤作屋屋無邊이라
此身隨處生涯足하니
飢食松花渴飮泉이어다.
일월로 등불을 삼으니 꺼지는 법 없고 건곤으로 집을 삼으니 모두가 내 집이네.
이 몸 가는 곳 마다 내 삶이 풍족하나니 주리면 송화를 먹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보물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천지로 집을 삼고 일월로 등불을 삼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한 물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끝없는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를 밝혀서 무명에 허덕이는 다른 이를 이끌어 가려는 보살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불보살님의 탄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는 명철한 지혜의 판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인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으로 최선을 삼아야 합니다.

근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진여법계라고 하는 보물 창고 속에 살면서도 진귀한 줄 모르고 보배를 찾아 헤맵니다. 밖으로 광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자성의 거울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구족되어 있는 속에서 부족하다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독이라는 지독한 그물을 끊어 버리고 천진자연의 걸림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있다가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대장부의 굳건한 용맹심을 발해서 작은 절개에 걸리지 말고 큰 기틀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신심으로 우리의 심전은 아무리 캐내어도 다하지 않는 보고라는 것을 믿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 삼아 정도라는 길이 탄탄해지는 것이니 잘 살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한다면 근본의 매듭을 풀어 참 해제를 해야 합니다. 시작이니 끝이니 하는 것은 근본에 도달하기 전엔 끝없는 연속일 뿐입니다. 풀고 또 풀어서 더 이상 풀 것이 없는 데 이르러야 해제를 한다 하겠습니다.

一切無非佛事 어늘
何須攝念坐禪 이며
妄想本來空寂 하니
不用斷除攀緣 이어다.
일체 모든 것이 불사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만 하려하는가?
망상이 본래 공하여 적적한 것이니
인연들을 애써 끊으려하지 말지어다.

“생사의 조롱속을 벗어나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롱속을 벗어났는가
조롱속에 닭은 모이가 있으나 끓는 가마솥이 가깝고
들에 사는 학은 양식이 없으나 천지가 넓도다.
미혹하면 모두가 촛불에 뛰어드는 나비와 같고
깨달으면 모두가 조롱을 벗어난 학과 같도다.

우리가 참선공부를 하는 목적은 저 생사의 조롱속을 벗어난 학과 같이 드넓은 천지간에서 대자유 대해탈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부지런히 의심하는 화두를 들고 곧장 여래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성심지를 관조하면 일체망념이 사라지고 화두만이 현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선도 악도 없으며 오직 타성일편의 시절이 도래하여 동정의 간격이 없고 자나 깨나 한결같은 공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가세존을 따라 수행 정진한 제자들과 역대조사들이 공부하여 크게 깨친 것입니다.

일찍이 향엄 스님은 위산 영우 선사의 법제자로 어렸을 때는 신동으로 하나를 듣고 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산 스님이 향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아직 동서도 가리지 못하던 때의 본래면목은 어떠한 것이냐 말해보라.”

향엄은 스승의 이 같은 뜻밖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답하고자 하였으나 위산 스님은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향엄은 스승에게 간절히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위산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견해일 뿐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에 향엄 스님은 위산 스님을 떠나 이 절 저 절을 떠돌던 중 혜충 국사의 유적지에서 탑을 지키며 오가는 수좌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청소를 하다가 돌멩이를 주워 대밭에 던졌습니다. 대나무에 돌멩이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에 대한 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향엄은 무한한 환희심으로 목욕 제계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후 향을 피우고 멀리 위산 스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위산 스님께 예배하는 것은 위산 스님의 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들 오늘의 이 같은 경쾌함이 있었으리오.”

“혜안과 법력을 갖추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과연 결제는 무엇이고, 해제는 무엇인가?

결제는 육근 육식의 모든 허망한 활동을 쉬고 가만히 자기의 본래면목을 돌이켜 보는 것이 결제입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하느냐 하면 구순을 하는데 일순이 10일이니까 9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결제중에 삼학사를 마치면 다행이지만 마치지 못 하면 해제는 아니고 결제중이라 이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생사를 다 마치고 료사한(了事漢)이 되는 것이 해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타고 있는 육식의 불을 끄고 본래면목을 회복하는 결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해제를 못한 상태에선 그저 삼보에 죄송하고 외호중과 단월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사람몸을 받아 부처님 법을 만나 무위법을 닦는 대중에 참예하여 공부한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선근을 심었기에 무슨 복으로 부처님 도장에서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뛉니다.

만약 이 소중하고 다행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진을 소홀히 한다든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중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문중에 혹이요 불한당이며 속물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불교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외도들이 극성하여 금력과 권력, 조직력, 그리고 지식력을 동원하여 우리 불교를 말살하려 합니다. 유비무환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도들이 날뛴다 해도 우리의 대비가 철저하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관경에 삼보의 열가지 위신력 가운데 첫번째 견뢰(堅牢)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보는 신묘하여 어떤 외도들도 깨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법내의 부실한자에 의해서 위기를 맞는다 했습니다. 불자들이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확고한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외도들도 감히 어쩌지 못하겠지만, 만약 자성과 자정의 노력도 없고 신심도 원력도 공심이 없다면 교단이 불신과 불화와 반목과 갈등으로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사중에 불사는 철저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히 혜안과 법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중생들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德崇山裏猶殘雪
窓外一枝梅花香
덕숭산은 아직 잔설로 덥혔는데
창밖에 한가지 매화꽃 향기 그윽하여라.

“공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서산스님께서는 애써 공부하는 제자에게 이런 게송을 써주셨습니다.

歷歷提公案하야
莫浮亦莫沈하라
虛明如水月하고
緩急若調琴하라
病者求醫志하고
嬰兒憶母心하라
做工親切處에
紅日上東岑하리라

화두를 분명하게 들어 망상도 혼침도 말라
텅 비고 밝기는 물에 비친 달같이 하고
게으르지도 조급하지도 말고 거문고 줄 고르듯 하라
병든 이가 의사 찾듯 어린아이가 어미 찾듯
이렇게 절실하게 공부하여 아침이 되면 해는 동산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열여섯 번째 국사이신 고봉 스님은 지리산 칠불암(七佛庵)에서 공부하실 때 수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저녁 예불하고나서 무거운 바윗돌을 등에 지고 동구(洞口)까지 내려갔다 오면 날이 밝았다고 합니다.

한해가 끝날 무렵, 갑자기 짊어진 돌이 가벼워 돌아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로 돌을 받치고 따라온 것입니다.

스님께서 큰 소리로 네가 왜 내 공부를 방해하느냐고 야단을 쳐서 쫓아냈는데, 지금도 쌍계사에 그 돌이 제수석(除睡石)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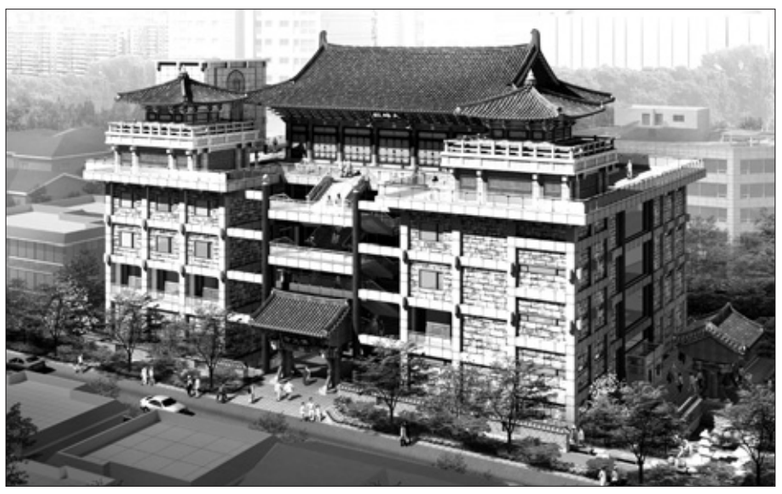
대중은 겨울동안 애써 공부하고 오늘 해제를 하는데 결제동안이 정중공부(靜中工夫)라면 해제동안은 동중공부(動中工夫)일 따름이지, 공부 자체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인은 잠이 오면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면서 공부했는데 어찌 해제라고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幾條綠水岩前去오
一片白雲江上來로다

몇 줄기 푸른물이 바위 앞으로 흘러가는고
한 조각 흰구름이 강물위로 떠오르는 구나
주장자를 세 번 구르고 하좌하다.

광덕 스님 사상 이을 새 보금자리 마련된다


2013년 3월 완공 예정인 불광법당의 조감도.

불광법당 도심포교 새 축으로 재건

근대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과 도심포교의 축으로 자리했던 서울 송파 불광사 불광법회(회주 지홍)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난다. 불광사는 2월 14일 광덕 스님 12주기 추모법회와 함께 불광사 재건축 착공식을 개최 했다. 이날 재건축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 대표 지정 스님은 "광덕 스님 추모법회 때마다 법당 재건축을 얘기했는데 오늘 착공식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이 자리가 법주 스님의 뜻이 기억되고 발전하는 불광을 서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추모법문을 통해 "스님의 전법원력이 새로운 법당에서 왕성하게 꽃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창불사 후에도 광덕 스님 사상을 더 크게 펼치는 곳, 한국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덕 스님은 도심 포교당의 원조 격인 불광사 창건자로 불교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스님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한 광덕 스님은 조계종단의 기틀을 마련한 뒤 종단 행정에 적극 참여했고 1971년에는 총무원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1974년 불광회를 통해 불광운동으로 불리는 다양한 포교 및 교육활동에 매진했다.

1974년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고 1979년에는 불광출판사를 설립했다. 〈불광〉은 30여 년간 대표 불교 교양지로 성장했으며 불광출판사는 불교경전 한글번역작업 등과 함께 4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출간했다. 불광사는 이런 광덕 스님의 불교대중화 원력의 꽃으로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건립됐다. 이후 서울에 구룡사, 능인선원 등의 대규모 도심포교당이 속속 등장했다. 그동안 불광사는 도심포교의 축으로 불광유치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포교활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2013년 3월 완공예정인 신축법당은 대지면적은 2112㎡(639평), 연면적은 9616㎡(2909평)에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4층까지는 현대식 건축으로 지상 5층은 전통 목조양식으로 지어진다. 3층과 4층에는 만불전과 선원이, 2층에는 요사채, 1층에는 종무소 및 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지하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규모 법회가 가능한 법당이 들어선다.

노덕현 기자

"한국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숲에 달렸다"

아이숲 원장연수의 성과와 의미


아이숲 원장 마가 스님

불교환경연대에서 실시한 첫 아이숲 원장 연수(2010년 12월 11일~ 2011년 1월 29일)는 출석률 90%이상일 정도로 원장님들의 관심과 열의가 뜨거웠다. 숲유치원은 불교와 자연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아이숲 유아학교 원장 연수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현하도록 하고, 아이 특성이나 기질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안 교육을 지향했다. 숲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나 억압에서 벗어나 정보를 재구성하고 표현하고 모험하는 등 각자의 기질 대로 놀이하며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아이숲 유아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 지도자 양성과정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의 한국유아교육은 서구적, 기독교적 방법이다. 이제 한국적, 불교적으로 바뀔 차례다. 최근에는 서양에서조차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사상, 교육 방식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교사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많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숲의 생태, 아동의 발달 단계, 환경과 생명존중 사상 및 안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교사들에게도 명상을 통해 새로운 교육관을 일깨웠다. 기존의 방식 중 안일하고 반성할 점은 없는지 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숲 학교는 불교환경연대가 현안사업 외에 환경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보살 양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수경 스님 은적 이후 침체기를 맞고 있으나 2월에 정기총회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습과정 148시간을 이수하면 사찰림 협력 숲유치원 활동 지원, 협력 유치원 및 사찰 관련 생태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3~7월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숲유아학교 지도자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4월에는 독일 · 일본의 숲 유치원 연수를 통해 한국적 숲유아 학교를 정착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학부모교육과 숲 명상학교를 통한 숲치유, 태교숲, 노인숲, 아토피 학교 등 숲과 관련된 여러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숲은 불교를 가르치려는 이제까지의 포교와는 달라져야 한다. 체험과 숲에 그 해답이 있다. 불교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숲이다. 불교환경연대 아이숲 학교는 시대의 요청이었다.

아직은 인력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종단과 함께 숲 관련 콘텐츠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실현해 간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종단의 지원과 동국대의 연구 기능이 적절히 결합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최근 사찰들은 운영이 어렵다고들 말한다. 아이숲은 사찰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숲유아 학교는 건물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있는 그대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한다. 어린이들은 숲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다. 마음만 낸다면 충분히 각 사찰에서 시도 해 볼 수 있다.

현재 청계사, 화계사, 흥국사, 용화사 등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시범사찰을 시작으로 교사 양성 견학 실습장으로 만들고, 성공적인 운영으로 타 사찰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설 희망 사찰엔 교사를 파견해서 자체 운영 때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숲은 우리의 미래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다. 아이숲에서 한국의 미래, 불교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찾고 싶다.

불교환경연대 부설 숲명상 · 숲유아학교 연구소는 숲유아학교 전문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유아교육 관련 교사를 비롯한 환경과 교육에 관심있는 자로 선착순 40명에 한해 3월 5일~7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청계사 사찰림에서 진행한다. 접수 희망자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와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02)734-1915

주간 브리핑

아름다운동행, 미숙아 가족 위한 물품후원

아름다운동행의 이사장 자승 스님이 2월 17일 동국대학교의료원 신생아중환자실을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하고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2월부터 1년간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 신생아와 미숙아, 가족을 대상으로 신생아 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불교학 연구회, 다도와 선 워크숍

불교학 연구회(회장 본각)는 2월 12일 도갑사에서 '다도와 선'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성신여대 외래교수 신미경 박사와 여연 스님이 각각 토론에 참석했다. 천진영 기자

동국대 2011년 학위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2월 1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1학년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81명, 석사 185명, 박사 98명 등 2464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에서는 박사 8명과 석사 12명이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남양유업 연평도 어린이집 버스 지원

조계사(주지 토진)와 남양유업은 2월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협약식을 갖고 연평도 어린이집에 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조계사는 같은 날 아이티 파병군인들의 안전모 지원을 위한 전달식도 가졌다. 박기범 기자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출범, 세영 스님 공동대표

종교를 초월해 사회적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는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이 공동대표 겸 부회장으로 참여한다. 박기범 기자

영문판 불교문화 제 8호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일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제 8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 8호에서는 종범 스님의 '팔정도'를 비롯해 서명원 서강대 신부의 '나의 화두 참선 입문기', '한국의 美 불교의 美'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포교원, 장학금 전달 및 포교사고시 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2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어린이 · 청소년포교의 핵심이 되는 지역별 거점사찰 83곳에장학금 104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20일에는 전국8개 고사장에서 제16차 포교사고시를 시행했다. 이나은 기자

직지사 신도회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신도회가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2월 13일 설법전에서 열었다. 특히 구제역 희생 가축 천도제가 함께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본말사 주지스님 및 소임자스님, 8교구 신도회장단, 각 사암 신행회 회장단, 직지사 신행단체, 신도 약 250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총 성명서

조계종의 5대결사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과 한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자정과 쇄신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받은 국민 종교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5대결사는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결사로서 구체적 실행을 위해 불교계의 전체의 지혜를 모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내 반응은 원로회의와 종책모임 그리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 에서 대체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실천에 기대를 하고 있는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우리나라 불교 대표종단이 내부 반성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종교로 거듭 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진정한 불교 발전을 위해 몇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5대결사를 내부반성으로 시작한 열린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둘째, 그러나 금번 5대결사는 조계종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

셋째, 조계종의 근본 문제는 성직자들에게 있을수없는 선거제도로 인한 승가의 타락과 중앙통제 재정체계 미 확립으로 인한 승가의 부패 이다.

넷째, 범불교적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조계종의 독선과 타종단에 대한 결례로 보일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출가승이 금기시 해야할 명예 추구, 권력과 돈에 대한 탐닉, 근본 계율의 붕괴 등의 현실에 대한 솔직하고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꿔 말하면 주지, 총무원장, 종회의원등은 참다운 출가승이면 각종 악의 근원인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단과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달라는 간곡한 원로들의 추천에 따라 몇번 고사 끝에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종단 자체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통제 재정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종단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1년(불기2555년) 2월 18일

대 한 민 국 지 키 기 불 교 도 총 연 합

전화 : 02)2265-0570 팩스 : 02)2265-0571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1-401246 대불총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카네이션학교 명예졸업식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카네이션학교 졸업생들이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노년의 꿈을 키워가는 카네이션학교

2006년부터 운영… 교과 수업 외 다양한 문화체험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카네이션 학교'는 비문해 및 무학력자 어르신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이다. 2006년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선정돼 3년 간 진행했으며 2009년 다시 선정됐다.

무학 및 초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 후 카네이션 학교 입학이 결정된다. 카네이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압축해서 교육한다.

카네이션학교는 주3회 2시간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실과 수업이 진행되고, 1년에 4번 특별행사와 문화체험도 마련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에게 학창 시절의 향수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이다. 참여율이 80%가 넘는 어르신은 초등학교 명예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중입검정고시 시험도 볼 수 있다.

40년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카네이션 학교 어르신 7명, 장안초교에서 명예졸업장 받아

아침부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최순임 어르신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취미교실의 시계를 올려다봤다.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카네이션학교 명예졸업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함께 공부했던 어르신들도 옷 매무새 단장에 한 참이었다.

비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2010년 카네이션학교의 교육활동을 마무리하 졸업식을 2월 16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졸업식은 복지관이 아닌 인근 장안초등학교에서 열린다. 복지관과 연계된 학교가 어르신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 때문이다. 졸업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눈에는 긴장과 설레임이 교차하고 있었다.

장안초등학교 졸업식장에 들어선 어르신들은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손주뻘 되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으려니 어색했지만 정규학교에서 졸업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르신들의 마음은 활짝 웃고 있었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학교 측은 장안초교 졸업생에 앞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카네이션학교 졸업생 7명에 대한 졸업장을 먼저 수여했다. 어르신들은 이름이 호명되는 순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랐다.

평생의 한이었던 졸업장 받고 눈물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평생 가슴의 한과 부러움으로 남아 있던 졸업장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다. 졸업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의지를 보인 어르신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졸업장을 받고 자리에 돌아온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으며 평생 가슴에 쌓였던 한을 풀어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네이션학교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고생이냐며 그냥 편하게 살라는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고 각 종 애경사나 친목 모임에 빠지면서도 수업에 참석했다.

카네이션학교는 출석율 80%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만 졸업자격을 수여하고 장안초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네이션 학교에서 현재 14명의 어르신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졸업하는 어르신들은 7명 뿐이다. 어르신들이 가슴에 품은 졸업장은 이런 고생 끝에 얻은 값진 수확이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복지관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꽃다발을 안겨드리며 축하를 전했다. 꽃다발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꽃보다 밝은 웃음을 지으며 졸업사진을 찍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권택기 국회의원은 "장안초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어르신들의 열정을 배우기 바란다. 배움의 열정이 남다른 대단한 어머니들이다"라며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주변의 유혹 뿌리치고 얻은 값진 수확

졸업식장을 빠져 나오자 어르신들은 긴장이 풀린 듯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어르신들은 졸업식 내내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며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기쁨을 나눴다.

강석례 어르신은 "아침부터 정말 가슴이 벅찼다. 같이 졸업한 동창생을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오늘 그 소원을 풀었다. 오랜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날이다"라고 말했다.

장안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마련한 졸업식이 준비돼 있었다. 복지관 졸업식에서는 함께 공부한 어르신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석례 어르신의 남편도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강 어르신은 "40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 꽃다발을 받아봤다. 졸업을 한 것도 기쁜데, 꽃다발까지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해 졸업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강석례 어르신은 남편이 선물한 꽃다발을 들고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며 부부애를 과시했다.


장안초등학교 선생님이 카네이션학교 어르신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복지관 졸업식에서는 최순임 어르신이 졸업생 대표로 소감문을 낭독했다. 최 어르신은 소감문 작성을 위해 전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차례 고치고, 또 고쳤다.

최순임 어르신은 "캄캄한 밤중 길을 혼자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와서 평생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돼 기쁩니다. 친구도 사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라며 소감문을 읽어나갔다.

어르신들은 그 동안 함께 공부해오던 시간들이 스쳐지나가는 듯 했다. 소감문을 읽는 최순임 어르신이나 앉아서 듣고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다. 최순임 어르신이 소감문 낭독을 마치자 어르신들은 박수를 쳤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한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복지관 졸업식마저 끝나자 어르신들은 장안초 졸업식과는 다른 분위기로 편안하게 졸업식을 즐겼다. 그 동안 공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나 복지관 직원들과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었다. 함께 졸업한 어르신들끼리도 사진을 찍으며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김종희 카네이션학교 교사는 "어르신들은 내가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도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벅차서 잠도 안 왔어요"

졸업생 최 순 임 어르신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봉사가 눈을 뜬 것 같아요."

명예졸업장을 받아든 최순임(70 · 사진) 어르신의 얼굴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딸에게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어르신은 한글을 몰라 평생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왔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는 비일비재 한 일이었다.

"평생의 한이었지요. 졸업식이라는 생각에 어제는 잠도 안 왔어요. 글을 모른다는 건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한글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할 수 밖에 없는 혼자만의 아픔이었다. 그러던 중 올케의 소개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을 찾게 됐고, 카네이션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카네이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최순임 어르신은 매일 일기를 쓴다. 처음에는 글씨도 엉망이고, 문장도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글씨도 예뻐지면서 문장도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졸업장을 받은 것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행복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몰 ▼
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판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

“전통문화 인식 천박한 지자체에 경종”



단풍나무 숲 지켜낸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전보다는 개발을 전제로 한 근시안적 사업에 집착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숲의 본래 모습을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우선인데 말이죠.”

전국 유일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을 지켜내며 지자체의 전통문화 인식에 경종을 울린 ‘단풍나무 숲 지킴이’ 고창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 고창 청량산에는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숲 속에 문수사가 고즈넉한 운치를 뽐내고 있다.

고창 은사리 청량산 입구에서 문수사 입구 부도밭까지 약 80m에 이르는 진입로에는 500여 단풍나무가 불법을 수호하듯 펼쳐져 있다. 단풍나무 숲은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될 만큼 탐스러운 곳이다. 작년, 고창군은 단풍나무숲 주변에 ‘신기 팜스테이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팜스테이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문화적 가치, 수행환경 훼손 등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사업이었다.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12만㎡에 이르는 단풍나무 숲의 가치를 모르고 경제적 이익에 눈먼 이들의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법적 대응도 불사했다. 선법 스님은 여타의 일은 모두 중단하고 단풍나무 숲을 지키기에 매진했다. 스님의 노력 끝에 건축허가는 취소됐다. 눈물겨운 성과였다.

“문수사와 단풍나무 숲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면서 고즈넉했던 산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문수사 일원은 사람들로 몸살을 앓았다.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리, 통제는 불가능했다. 선법 스님은 그간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과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숲에서 솥 걸어놓고 개 천렵을 하던 사람부터 나뭇가지를 마구 꺾는 사람들을 만류하다 멱살을 잡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숲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군에 관리인원의 충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관계로 반려됐죠. 산골 산사의 여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스님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표정이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가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시민이 아닌 지자체였다.

선법 스님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사찰과 마을 주민이 상생하며 숲의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법 스님은 2008년 화재로 소실된 한산전 복원과 단풍나무 숲을 활용한 숲 명상 템플스테이, 생태 숲 학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에게 숲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고창 청량산 단풍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된 전국 유일의 숲이다.

“네티즌과 함께 번역한 〈아미타경소〉”

‘아미타파’ 인터넷 까페지기 정 목 스님

“원효 스님의 사상을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번역불사는 선근복덕과 지혜와 원행의 잠재력이 무궁함을 증명하는 거룩한 작업이었습니다.”

양산 오룡골 정토원장 정목 스님은 2월 13일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아미타경소〉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전인 〈불설아미타경〉을 원효 스님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한 〈아미타경소〉의 한글 번역본이다.

정목 스님은 “원효 스님의 〈아미타경소〉는 안타깝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한문으로 쓰였다”며 “요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원문 번역과 이해를 돕는 쉬운 해설을 곁들여 〈아미타경소〉로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책의 집필과정에서는 인터넷까페 ‘아미타파’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 회원들이 번역 및 해설, 교정 등 집필 전 과정에 동참했다.

스님은 “번역불사에 동참해 밤낮으로 교정을 보아주신 회원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며 “비록 수행력이 깊지 못한 소납이 해설하였지만, 이 책을 읽은 눈 밝은 선지식이 출현해 그 뜻을 더욱 깊고 넓게 전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스님이 개설한 ‘아미타파’는 염불수행과 불교 교리 등 심도 있는 자기수행을 원하는 불자들이 모인 동호회로,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정목 스님의 저서에는 〈염불신행의 원리와 비결〉 〈한국의 염불수행과 원효스님〉 〈윤회는 없다〉 〈신앙의 빛〉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무량수경종요〉 등이 있다.

박지원 기자

전주 신흥고, 기독교 교육강요 서약서 ‘물의’

기독교 사학인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신입생에게 학교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신입생 자료에 의하면 신흥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순종하겠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입학할 때부터 종교를 믿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학교는 16일 “서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모르고 관행적으로 신입생 예비소집 때 학생들에게 보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서약서 제출을 폐기하고 다른 입학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물의가 일자 각 기독사학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된 상태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전주 신흥고는 74명의 전체 교직원이 개신교 신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30학급 1134명의 재학생 중 개신교 학생은 614명에 달하는 데 비해 불자학생은 18명, 천주교 58명, 원불교는 3명에 불과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전주신흥고VS우석고’라는 제목의 질문에는 “신흥고는 일주일 동안 아침 조회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있다. 금요일 1교시에 정규 예배시간도 있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성경과목 있다”며 “교회나 성당 다니지 않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 그간 교내에 심각한 종교편향이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 해 대법원은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교육당국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기본교육법’ 등 대법원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부산聯, 안국불교대학에 새둥지

초대회장 수불 스님 수행 전법 활동 전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가 부산 거제동 옛 안국불교대학(학장 무관)에 새둥지를 틀었다. 연합회장이자 안국불교대학 이사장이기도 한 수불 스님이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안국불교대학 건물을 쾌척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개관식은 2월 17일 거제동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수불 스님은 “본 연합회의 창립계기가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인 신도교육의 질적 향상과 일맥상통해 조계종부산연합회에 모든 운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월 17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관에서 개관식을 봉행했다.

2011년 사업계획으로는 수행 및 전법 영역으로 나뉜다. △민족전통문화수호대법회 개최(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 △성도재일 기념법회 개최 △부산불교연합회 주최 봉축대법회와 팔관회 동참 △도심포교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민족문화수호 합동방생법회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2월 15일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정초방생법회 및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 · 말사 합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부산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3월 17일 있을 부산 민족문화수호법회에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광주 금선사, 자비의 쌀 전달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2월 12일 대웅전에서 ‘2011 행복나눔 금선사 자비나눔 기금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는 자비의 찹쌀 1010kg과 150여 만원을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자비신행회 등에 전달했다.

일명 스님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부처님에게 큰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천 스님, 장학금 전달

금산사 복지원 남원지부(지부장 운천. 선원사 주지)는 2월 10일 마진원(남원고 3)군 등 남원 지역 40여 초 · 중 · 고 학생에게 1인당 장학금 10만원씩을 전달했다.

운천 스님은 “받기만 하는 종교가 아닌 이웃에게 회향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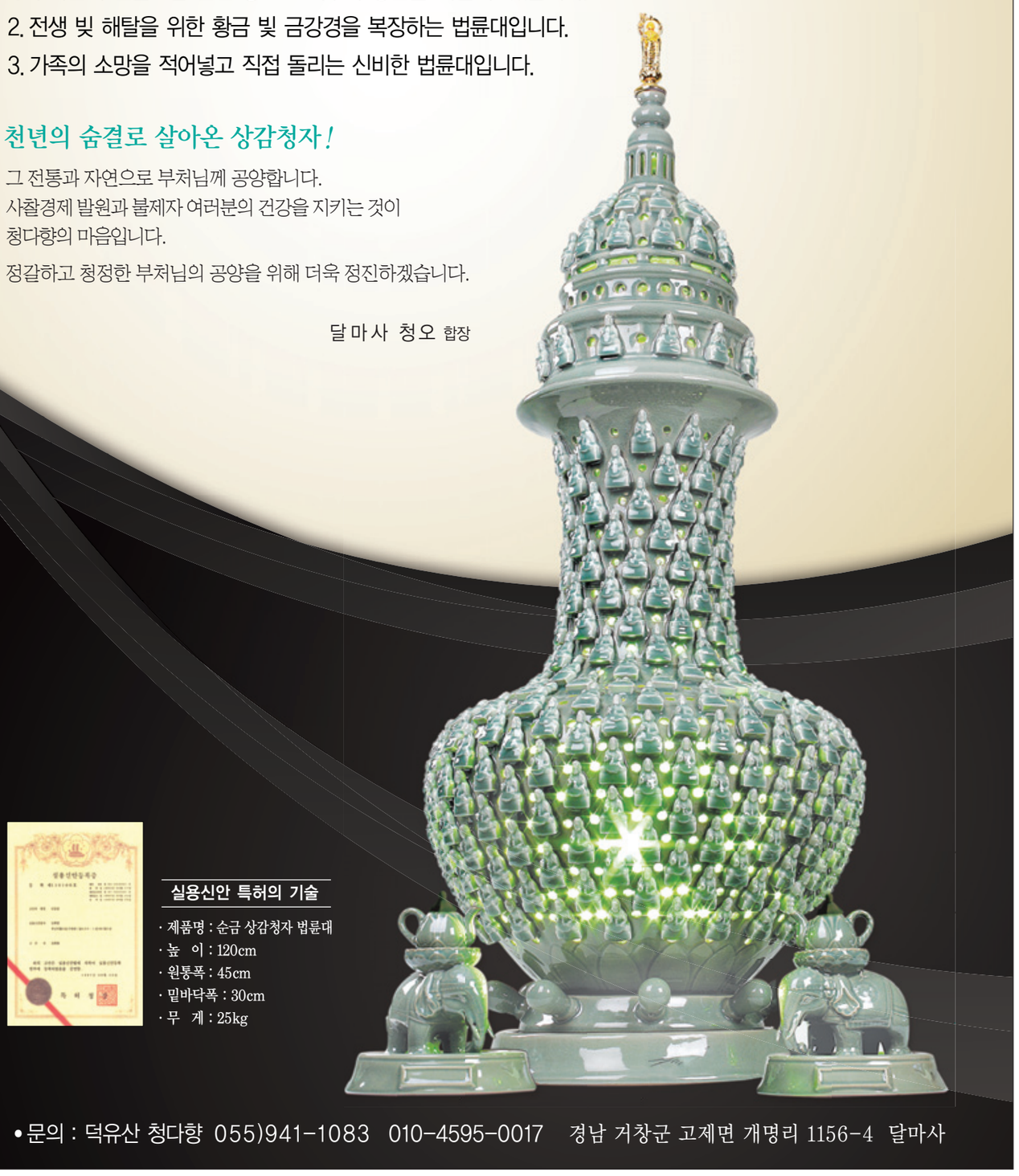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㉓

괘탑(掛搭)·입방(入房)·방부(房付)

입방 허락되면 문수상 앞 오체투지

선종사원(총림)에서는 1년에 두 번 공식적으로 함께 안거할 납자(衲子, 수행승)들을 받아들인다. 하안거 때와 동안거 때인데 이것을 〈선원청규〉에서는 '괘탑(掛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입방' 또는 '방부'라고 부른다.

'괘탑(掛搭)'은 발우와 가사 등 도구를 '이가(椸架:걸게, 횃대)에 건다'는 뜻으로, 입방이 허락되면 수행승은 발낭(鉢囊, 걸망)을 승당 내에 설치된 이가(椸架)와 탑구(搭勾, 옷걸이)에 걸어 두었던(掛搭) 데서 비롯된 말이다.

또 괘탑(입방)을 '괘석(掛錫)'이라고도 한다. '석장(錫杖, 주장자)을 걸어 두다'는 뜻으로 행각(行脚)할 때 갖고 다니던 석장을 입방하면 3개월 동안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승당(僧堂, 좌선당, 선당) 벽에 걸어 두었던 데서 유래한다. 또 중료(衆寮, 대중방)에 들어가 함께 기거한다는 뜻에서 '입료(入寮)'라고도 하며, 총림의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입중(入衆)'이라고도 한다.

괘탑·괘석을 우리나라에서는 '입방(入榜, 용상방에 이름을 넣음)', '입방(入房, 방에 들어감. 그러나 入榜의 와전인 듯 함)' 또는 '방부(榜付, 용상방에 이름을 붙이다)'라고 한다. 요즘엔 대체로 '방부 들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말로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괘탑이라고 한다. 선원총림의 규칙과 용어, 운용 등에 대한 법전(法典)인 청규(清規)에도 없는 말이고, 선학사전이나 무착도충(1653~1744)의 〈선림상기전〉에도 없는 말이다. 특히 '방부 들인다'는 말은 입방을 풀어쓴 말로서 조선 후기나 근대에 생긴 비속어이다. 발우의 비속어가 '바리때' '바루때'이고, 사찰의 비속어가 '절집'인 것처럼, 품위 없는 비속어들이 아어(雅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가 비속해지면 생각이나 행동도 비속해 지는 때가 많다.

안거때마다 괘탑 허용
'방부 들인다'는 비속어

괘탑(掛搭, 입방)의 절차와 과정 등은 좀 까다롭다. 요즘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2~3일 전, 심지어는 하루 전에도 가능하지만(권위 있는 선방은 두 달 전부터 해야 한다고 함), 1000년 전 당송시대에는 결제하기 15일 전에 입방절차를 마치고 승당·중료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므로 하안거 때는 음력 3월 30일까지, 동안거 때는 9월 30일까지는 괘탑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입방할 수가 없었는데, 선원에서는 4월 1일이 되면 객승이 묵는 단과료(旦過寮, 客室)를 아예 폐쇄해 버린다(〈칙수백장청규〉「절탑장」, 月分須知).

그 이유를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 하안거 결제)」 장에서는 "행각승(객승)이 하안거 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모름지기 반월(半月, 15일) 전에 괘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탕(茶湯, 차)의 인사(人事)를 창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다탕의 인사란' 다례인데, 새로 입방하는 수행승이 총림의 다례(茶禮), 행례(行禮)를 익히자면 적어도 안거 15일 전에는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안거는 총림의 4절(節, 하안거 결제, 해제, 동지, 정월 초하루)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 밖에도 결제 전에 소임을 정해야 하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총림에 새로 괘탑(입방)하는 사람을 당송 시대에는 '신도(新到)'라고 불렀다. '새로 온 납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잠간 머무는 객승을 '잠도(暫到)'라고 불렀다. 신도나 잠도는 일단은 모두 객승이므로 접빈 담당인 지객(知客)스님을 만나야 한다. 신도로서 입방하고자 한다면 지객에게 입방의사를 밝힌 다음 신청양식에 자신의 본명과 법명, 나이, 본사, 은사스님, 그리고 전년도 하안거에 동참했던 사찰 등을 적어서 제출한다. 그런 다음 단과료(旦過寮)에서 기다린다. 단과료(旦過寮)는 객실로서 '하루 묵어가는 요사'라는 뜻이다.

신도(新到, 입방할 객승)든 잠도(暫到, 잠시 머무는 객승)든 객승은 단과료에서 3일 이상을 묵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는 단과료에 온지 3일 이내에 입방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고, 잠도는 3일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입방승의 경우는 입방 절차 등 때문에 며칠 더 있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괘탑은 총림이 매우 어렵거나 입방자의 행실이 몹시 불손한 경우와 가짜승, 악소문이 퍼진 납자가 아니라면 거의 입방할 수 있다. 총림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대중이 공주(共住)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과료에 머무는 것은 서류 심사 기간인 동시에 입방의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또 입방하고자 찾아오는 수행승의 입방절차를 그 때 그 때마다 밟게 한다면 사중(寺中)이 번잡하므로 여러 명을 모아서 함께 괘탑 절차를 밟고자 했던 것이다.

총림의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일단 입방이 허락되면 총림의 규율담당인 유나(維那)스님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부는 여기서 결정 나는데, 유나를 면담할 때는 입방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즉 계첩(수계첩)과 국가에서 발행하는 승려증인 도첩, 병역과 노역면제 확인서인 면정유(免丁由), 그리고 좌하유(坐夏由, 전년도 하안거 증명서)를 사부통(祠部桶, 서류통)에 넣어 갖고 지객스님의 안내로 유나실(維那室)로 향한다. 보통 3명 이상이 함께 가는 데(많아도 한 번에 9명을 넘기지 않는다), 이때 입방승 가운데서도 법랍이 있는 고참(古參)이 가장 맨 앞에 선다. 신참(新參)은 입방 절차나 총림의 예절 등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고참을 '참두(參頭)'라고 하는데, 예의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참두를 필두로 신도(新到)들은 공손하게 한 줄로 서서 유나스님에게 오체투지의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신도(新到) 상간(相看, 문안)입니다"라고 한다. 새로 온(新到) 객승인데 문안드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객승으로서 입방하고자 할 때는 큰 방 앞에서 "객승 문안드리오"라고 하면 지객이 나가서 안내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다. 이어 신도(입방승)가 먼저 "오래부터 도풍이 울려 퍼지니 이곳 한 쪽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자비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유나는 "광림(光臨)함을 입어서 산문(山門)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라고 응대한다. 이어 각자 서류를 넣은 사부통을 내밀면 유나스님은 일일이 확인한다. 특히 도첩과 면정유는 의심이 날 경우 지방 관아에까지 연락해 확인했다. 이 두 서류가 가장 가짜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2010년 동안거 입재 때 스님들이 입방하고 있다.

유나의 심의가 별 이상 없이 통과되면 객승은 "온존(溫存, 친절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하고 감사의 말을 한다. 유나는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서(까다롭게 심사했으므로) 송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유나실의 시자는 "상좌(上座, 객승에 대한 존칭)는 승당으로 돌아가서(歸堂) 괘탑(발낭을 걸다)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공식으로 입방이 허락된 것이다.

입방이 허락되면 괘탑인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사괘탑(謝掛塔, 괘탑에 대한 감사 표시 및 신고)'

입방시 승적관계 꼼꼼히 심사
외출 후 15일 지나면 입방 무효

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유나와 함께 승당으로 올라가서 성승상(聖僧像, 僧形文殊象) 앞에서 오체투지의 3배를 해야 한다. 이 때 동행한 시자(侍者)는 두 손으로 사부통을 높이 받쳐 든다. 이어 유나는 법랍에 따라 각각 자리를 배정해 준 다음 사부통을 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방이 허락되면 전(全) 대중에게 신고(申告)하는 과정이 있다. 아침공양이 끝날 때 쯤 지객스님의 안내로 큰 방으로 들어가서 조실과 주지 등 어른 스님이 앉아 있는 어간(御間)을 향하여 3배를 한 다음 무릎을 끓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 지객스님이 입방승의 법명과 본사, 은사스님의 법호 등을 공지하는 것으로 입방절차는 끝난다. 아마 당송 때 총림의 입방절차에도 당연히 전(全) 대중에게 고(告)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승당에서 나오면 주지(방장)스님에게 괘탑인사를 해야 한다. 신도(입방승)는 방장실로 가서 시자에게 "신도(新到) 화상을 배알코자합니다. 번거롭지만 여쭈어 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시자는 입방승을 주지스님에게 안내한다. 역시 오체투지의 3배를 한 다음, "오래 전부터 화상의 도풍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존안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 없는 기쁨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뒤로 몇 발짝 물러나서 다시 엎드려 "화상의 존체, 기거(起居)가 만복하기를 바라나이다"하고 거듭 아뢴다. 주지는 객승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다음은 중료(衆寮, 대중방)로 가서 요주(寮主, 寮元. 중료의 책임자)에게 괘탑인사를 해야 한다. 역시 "신도(新到) 상간(相看)입니다"라고 인사한 다음 3배를 한다. 요주는 새로 입방한 수행승들에게 앉는 자리와 그리고 경전을 볼 때 사용하는 책상(看讀床桉) 등을 지정해 준다. 중료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알려 준다.

사괘탑이 끝나면 입방승들은 총림의 모든 대중들에게 차(茶) 공양을 올린다. 이것을 '중료(衆寮)로 들어 가는 차(茶)'라는 뜻에서 '입료차(入寮茶)'라고 한다. 말하자면 대중스님들과 상견례를 겸한 '입방 신고식' 같은 것이다.

괘탑(입방) 후에 대중들에게 차(茶)공양을 내는 풍습은 당대(唐代)에는 없었다. 세속적인 풍습인데, 그 명칭이 입료차(入寮茶)인 것으로 보아 송대에 생긴 풍습이라고 보여진다(중료라는 당우는 당대에는 없었고 송대에 신축된 당우임). 그런데 대중들이 보통 몇 백 명 되었으므로 운수납자로서 배료전(陪寮錢, 차 값)을 내어 차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후대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폐지됐다. 이것은 아마 당시 관료들이 처음 출사(出仕)하면 동료 관원들에게 한턱을 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음), 이것이 점점 총림에 전이(轉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괘탑(입방)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자들은 외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외출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보름 이내에 귀사(歸寺)해야 한다. 이것을 청가(請暇, 외출), 또는 잠가(暫暇, 잠시 외출)라고 하는데, 15일이 넘으면 입방이 무효화됐다. 만일 다시 입방하고자 한다면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 E 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用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바른정법.바른인연

부처님의 정법 (경전 및 조사어록)만을 고집하는 수행 납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터를 마련하여 대웅전(법당)을 건립하고저 하오니 불사에 동참할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재, 부적, 철학, 조류방생, 인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등의 일체 기복을 사절하오며, 시한부 암환자나 희귀병자, 신병등의 환자분들과 **인간 방생의 인연을 짓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타 종교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의 도량에서 소리 소문없이 정법의 기도로서 지난 십 수년간 책을 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병석에서 일어나 각자 새 삶을 얻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합니다.
(현재는 천일기도 및 동안거 백일기도중)

불.법.승. 정법.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중일동
주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화 : 055)633-6555

사)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종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주 소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청정 청등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평주』, 『육임책력』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7시~9시30분

■ **기 문 둔 갑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과 기문둔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주요저서 : 『기문병방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 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一)』, 『명리대정전』, 『복을 읽는 인상학』, 『수상과 손금의학』등
※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 공개강의 및 개강일 : 3월 7일(월요일) 저녁 7시 ~ 10시

■ **관상수상학 과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 ~ 12시 30분

■ **타로카드 과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매주 수 요일) 오후 7시 ~ 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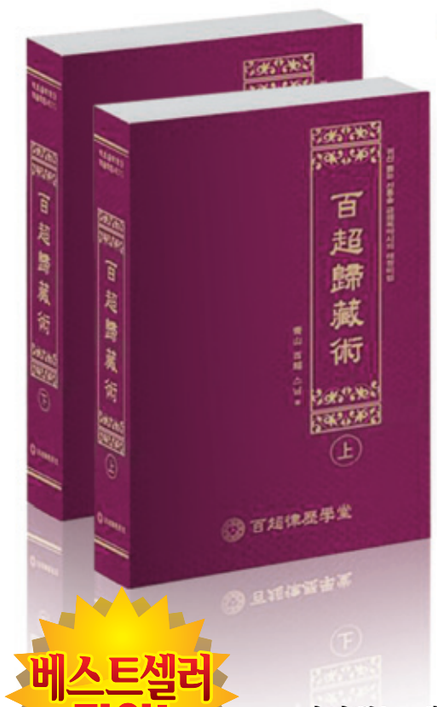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 건 식 품 처 방 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 육 생 상 시 모 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연수원 (바라, 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본 예술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2기(6개월 과정)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학 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특 강
1. 기 초 이 론	이론 및 실기 •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월	5~6시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보유자 경호 큰스님 직강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바라무 조교 보련 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및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직강 ⦿ 속성반 (바라, 작법무, 실전위주)
2. 전 문 의 식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화	5~6시	
3. 바 라 작법무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다게작법,삼귀의,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월 • 화	4~5시	부산시 지정 무형 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 등록 무

■ **특 전** :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 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 **모집기간** : 2011년 2월 20일 ~ 3월 2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22일(화) 오후 3시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동사

부산영산보존회 바라 작법무 연수원 / 부산 북구 만덕동 447-4

연락처 : 혜화 교무스님 010-2563-5550

심인불교대학 <心印佛教大學>

2011년 제1기 심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근본사상(佛教根本思想)과 대승보살(大乘菩薩)의 실천수행(實踐修行)을 기본(基本)으로 하여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대원(大願)하는 **'심인불교대학'** 법우(法友)를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재가불자, 법사, 비구, 비구니(승려)
교육기간	• 입학 : **2011년 4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 졸업 : **2011년 10월 2일 (일요일) 6개월 과정**
교육과목	■ 불교(佛教)란 : 근본불교(根本佛教)의 기본사상(基本思想) ■ 밀교(密教)의 삼대사상(三大思想) – 〈육대(六大), 사만(四曼), 삼밀(三密)〉 ■ 만다라(曼荼羅) 〈화엄(華嚴)사상(思想)〉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우리나라 만다라, 화엄신중, 감로만다라(탱화)〉 ▫ 불신론(佛身論) = 밀교의 삼륜신(三輪身), 현교의(三身佛) ▫ 진언과 수행(眞言과 修行) = 삼밀정진(三密精進) ▫ 진언염송(眞言念誦) = 육자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
특별과목	• 공사상(空思想) = 空이란? • 운명과 숙명(運命과 宿命)이란? • 명상법(冥想法) = 위빠사나 수행법, 참선수행법 • 밀교(密教)의 성불론(成佛論)과 현교(顯教)의 성불론(成佛論)
교육시간	• 매주 : 일요일 오후 2시부터 ~ 오후 4시까지 2시간
교육장소	•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 법사과정 : 대학졸업자

※ 수강료 교재비 무료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심 인 불 교 대 학 무 애 정 사

문의 031)675-3837, 팩스 031)675-3827, H·P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88-7번지 삼현빌딩 3층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법화사상,대승불교,화엄사상, 정토사상,밀교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정병조교수(금강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엄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불교미술,선학의이해,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근본불교,반야사상,유식사상,불교상담론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동산대),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180명 : 목요반(오후2시), 토요반(오후 6시), 통신반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20명)	천자문역해, 한문해석 금강경(1),(2), 중국고전(장자), 유마경(1), 초발심자경문, 삼국유사 등	이윤숙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제다실평, 육대행다다류, 차의 미학, 티테이블세팅, 한국차, 중국차, 일본차, 홍차, 차명상	박희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0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 · 통신반 각 30명)	불교 포교론(2)	활안스님	3월 7일(매주-월) 오후 7시
	팔천송반야경(1)	김형준교수	3월 8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 수증론(3)	최봉수교수	3월 10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경, 다부, 대관다론, 다신전, 동다송	김진숙교수	3월 15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공(이론,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5일(매주-토) 오후 2시
범패의식반(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관음시식, 상용영반, 천수바라, 요잡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3월 9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대반열반경 강의안내

(大般涅槃經)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대승 5대 부문으로 꼽히는 화엄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 중에서 열반부를 대표하는 경전이 바로 북본 열반경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가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 대중스님들에게 마지막 좋은 기해라 봅니다.

그동안 10년여 동안 각성큰스님의 경전강좌를 통해서 전강생 23명 스님을 배출하였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수행과 포교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스님과 불교학자들에게는 자기완성과 대중교화에 커다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강의일시 | 2011년 **3**월 **15**일(화)부터 ~
강의시간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 강 료 | 무료
기 간 | 2년간
경 비 | 1년간 백이십만원
내용(열반경40권, 운영비, 해외학술세미나 1회 포함)
대 상 | 비구, 비구니
자 격 | 법납 15년이상 동국대 재학생 및 졸업자스님
서울불교전문강당 졸업자 및 재학생스님
승가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그 외 동등한 스님에 한함.
구비서류 | 수행이력서 1부
접수기간 |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예금주:최재동)
문 의 | 010-4242-7070(연구소장 법경)
010-5497-8018(연구위원 용화)
011-520-9350(연구위원 도행)
접 수 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주최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상운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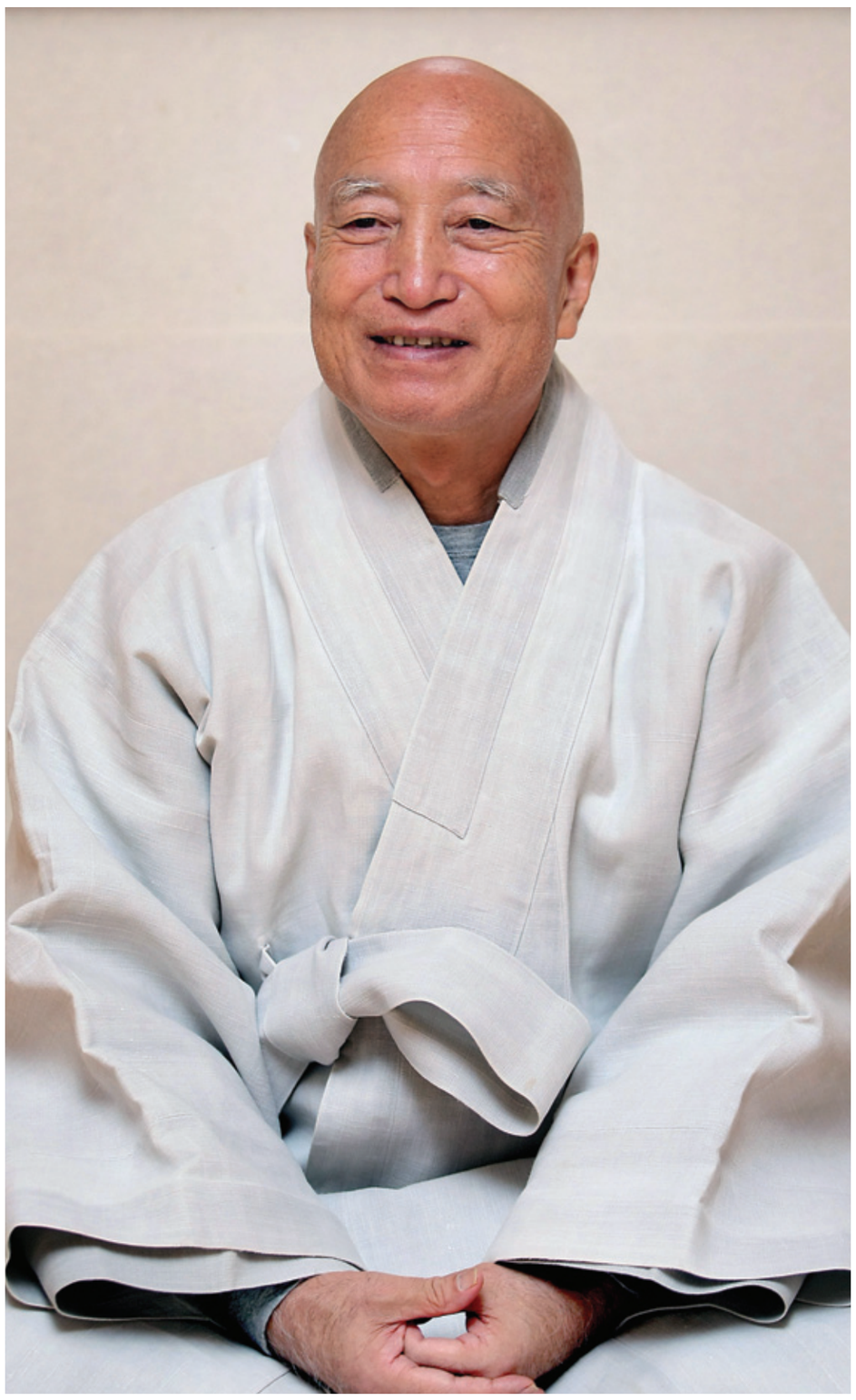
3.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소에서 교부)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고, 끌어안으면 불행하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설정스님은 …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범어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그 후 수덕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하고 문경 봉암사에서 수년간 수행했으며, 상원사 청량선원,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2009년 8월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덕숭총림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11월에 대종사 법계 품수 동의를 받았다. 이판과 사판을 두루 아우른 이사원융의 대표적 산승이다.

이월의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른빛이었다. 볼에 와 닿는 바람은 차갑고 산색은 아직 겨울 빛깔이다. 정혜사로 가는 길은 하늘 길처럼 까마득해 보였다. 천팔십 개의 돌계단을 지나야 한다. 백팔 번뇌를 버리고 또 버리어 열 번을 채우다 보면 정혜사 도량에 가 닿을 것이다. 덕숭산은 멀리서 보면 그 기상이 늠름한 것이 거세어 보이지만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 보니 엄마 품속처럼 포근하다.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그대로 멈추어선 채 얼어붙어있고, 소나무 아래엔 채 녹지 않은 흰 눈이 쌓여 있는 아름다운 풍광은 떠나오기 전의 시공간을 잊게 만든다.

정혜사로 통하는 아치형의 바위 문을 통과하자 딱따구리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숲을 흔들었다. 성(聖)과 속(俗)이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정혜사 도량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또 다른 성스러운 세계에 와 있음을 실감하였다.

창호문을 투과한 오후의 빛살은 투명했고, 그 넓은 공간을 통방울 같은 눈을 부라리며 달마 대사가 지키고 있다. 덕숭총림 방장이신 설정 스님께 나붓이 예를 올렸다.

선객들 사이에 정혜사 선원은 방부들이기도 어렵지만 구참 스님들이 많아 공부하기도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 어느 곳보다 정진의 열기가 뜨겁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문이 잘못 났구먼. 어느 선방이든지 참선공부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보겠다고 스스로 발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방이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극기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공부하는 곳이 선방입니다. 참선공부는 최단의 극기와 자제, 인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디든지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참선공부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진척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기에 '본래 면목을 찾겠다'는 굳건한 원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부입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강하게 공부할 것을 주문할 뿐입니다."

경허 스님, 만공 스님을 배출한 수덕사는 한국 선종의 일번지이며 내려오는 가풍은 공부인들에겐 날선 지침이 된다. 선농일치라는 외형적인 가풍이 있으며, 내형적인 가풍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다 막고서 공부하라는 것이다.

"안이비설신의가 바깥경계를 향해서 춤추지 않고 날뛰지 않도록 하고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막지 않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것도, 시시비비도 다 놓아버리고, 부처다 조사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자신을 찾는데 전념하는 것이 가풍입니다."

오롯이 마음공부하는데만 전념하라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기에 마음공부가 으뜸공부인 것이다.

은사이신 원담 스님은 "해제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해제란 생사결단을 해야만 해제이다. 해제날인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 생각하고 발심을 해서 새로운 결제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상좌들에게 일렀다. 설정 스님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기에 365일이 안거요, 날마다 결제날인 것이다.

공부가 항상 여일하고 순일하였는지, 힘들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쭈었다.

"참선공부는 막히는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깨친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막혀있어요. 막혀있는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막히지 않았다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은산철벽과 같이 출구가 없는 당처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 공부는 원래 막힌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조사스님들의 행의처를 생각해 보고,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참선하는 것이 말을 타고 달리듯 계속 달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에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육체적인 리듬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부단하게 가는 것입니다. 단절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듯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선공부는 한 고비 넘기고 나면 이것만큼 맛있는 공부가 없으며, 한번 맛을 본 사람은 퇴전하지 않습니다. 선은 함이 없는 공부이며 선을 하는 사람은 둔(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공부인 것이지 계산 빠르고 그런 사람은 선공부를 할 수 없어요. 참선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고비 넘기고 나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제쳐놓고 왜 다른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참선공부는 꽉 막힌 데서 시작
> 깨친 이 외에는 모두 막혀 있어

선(禪)이 중생들이 당면한 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더니 한마디로 단단하게 "의심하지 말라"고 일렀다.

"불교에서 '성불하자'는 것은 자기 본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불교인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대로 공부한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한 곳으로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기만 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요. 불교는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만중생에게 만생물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불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행복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중생의 근기이지만 믿기만 하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눈이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여도 눈 자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외부세계는 환하게 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세계는 잘 모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 중생들이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선이며, 선을 통해 자기 본성을 회복하여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다.

설정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깨달음 혹은 견성'이란 어떤 것인지 여쭈었다.

"분별심이 없는 것,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견성입니다. 청정한 불성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중생들은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나와 너, 이렇게 갈라지고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증오심과 진에심(瞋恚心)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분별심과 진에심이 생기는데서 윤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변견(邊見)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생사의 윤회를 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견성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견성이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보배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견이 떨어지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요."

'변견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임제 선사의 "만약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는 곳은 모두 참된 곳일 것이며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았다.

선가에서는 '왜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하면 마구니로 몰아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더니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답했다.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성이란 상이 없는 것이기에 깨달았다느니 깨닫지 못했다느니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성과 품성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깨달음의 맑은 기운 또한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화선이 세계적인 선수행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를 여쭈었다.

"각광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전에 만 중생이 선(禪)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은 모든 중생이 가야 할 길이지 불교의 길만이 아닙니다. 간화선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불자들의 할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혼란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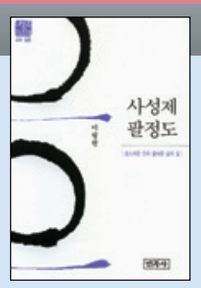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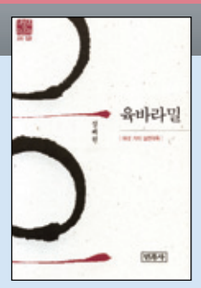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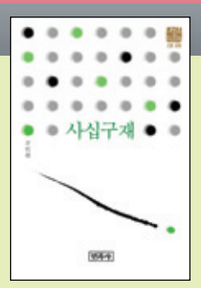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내 영혼의 작은 책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교리 · 입문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신행 · 문화	신행 · 문화
사성제 · 팔정도	육바라밀	생활명상	위빠사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사십구재
						
이필원 _ 값 6,500원	성재헌 _ 값 6,500원	김남선 _ 값 6,500원	정준영 _ 값 6,500원	김호성 _ 값 6,500원	여여법사 _ 값 6,500원	구미래 _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여섯 가지 실천 덕목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를 기약하지 마세요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 · 입문〉, 〈수행 · 명상〉, 〈신행 · 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 이메일: minjoksa@chol.com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민족사

쓸데없는데 쓰는 힘 아끼면 열정돼



을 겪고 있으며 온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진단하기를 현대인의 60% 이상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정신질환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불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게 되면 굳이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르치게 됩니다."

재가불자들이 좀 더 쉽게 선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쭈었다.

"간화선에는 왕도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간화선은 재미가 없는 공부인데 한고비만 넘기면 재미가 있어요. 선을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선이 다 있습니다. 꼭 앉아야 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순간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서서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생활 속에서 선을 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쓸데없는데 자기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루를 경영하고 사상은 내일을 경영하고 종교라고 하는 특히 선은 영원을 경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 생명을 경영해서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선입니다. 영원의 농사를 짓는데 단시일에 효과를 보려고 해서 되겠어요? 차분히 한순간 한순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리가 잡히고 선의 참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禪은 영원을 경영하는 길
끝끝내 자기 지킬 힘 얻어

스님은 고령화시대의 대안으로도 선수행을 꼽았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으로 전락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참선이란다.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을 요청하였다.

"운문 선사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는 공안을 남겼는데,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와 허공이라는 공(空)으로 되어있습니다. 지(地)는 인간의 오만, 수(水)는 분노, 화(火)는 탐욕, 풍(風)은 시기질투, 공(空)은 무지입니다. 중생의 삶은 이 다섯 가지를 진짜로 알고 신나게 살고 있어요. 오만을 가져본들, 분노를 일으켜 본들 탐욕을 부려본들, 그것이 무엇에 쓰일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중생이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내려놓고 살면 행복한데 이러한 것을 끌어안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일일호시일이 되도록 살아야지, 일일악시일이 되도록 살아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중생 노릇하면서 복이 오라고 하니까 복이 오지 않는 것이지, 부처 노릇하면 복이 절로 옵니다."



선의 종장이신 설정 스님께서 전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르침' 을 오롯이 가슴에 새길 일이다. 딱따구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서 천팔십 개의 계단을 되짚어 산을 내려왔다.

문윤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갈대가 자라 무릎을 뚫는다

동안거를 해제했다. 원래 안거란 비에서 나온 말이다. 인도의 불교 수행자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 간 우기(雨期) 때에 외출할 경우 초목이나, 작은 곤충들을 모르고 밟아 해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했다. 이것을 우안거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안거는 우안거의 생략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비는 범어로 varsha라고 한다.

선종에서는 하안거 · 동안거라고 해서 각각 90일 동안 외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좌선을 통한 수행에 전념한다. 제방의 수행자들은 안거를 마치는 날인 안거경(安居境)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안거경은 단순히 시간이 가리키는 약정된 날이 아니라고 본다. 참다운 수행자에게 시간이란 부질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일일 터이니 말이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희구하는 활연대오(豁然大悟)의 날이 공부를 마치는 날이고 진정한 해제일이라고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

오등록(五燈錄)은 〈경덕전등록〉 · 〈광등록〉 · 〈속등록〉 · 〈연등록〉 · 〈보등록〉을 이른다. 〈속등록〉 법화제거장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여하시불(如何是佛) 입니까? 법화 선사가 답했다. 노아천슬(蘆芽穿膝)이다. 즉, 갈대의 싹이 자라 수행자의 무릎을 뚫는구나.

이 글은 멋진 수행자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사람들은 흔히 일의 성패를 논할 때 운 타령을 곧 잘 한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 일이 성사됐다 하기도 하고, 사안이 여의치 못하면 운이 좋지 않아 일이 그르쳤다고도 한다.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도전해 봤느냐의 물음에 '아뿔사!' 만 연발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내 누군가가 구각춘풍(口角春風)으로 귀를 솔깃하게 한들 무슨 신통한 처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달뜬 나머지 동서남북으로 육신과 마음을 허둥거린다 한들 신통한 일이 생길 리 없다. 자업자득이라 했다. 내가 지은 행위는 내가 받는다는 가르침은 비단 업의 문제에만 국한 되지 않고 삶의 도처에 적용되고 있다. 수행에 있어서도 내가 지은 만큼 그만한 집을 짓고 그만한 그릇에 담기 마련이다. 소위 조행(操行)은 한 인간의 미래의 거울이 된다.

부처님 존상 앞에 서면 경외심이 절로 난다. 그 경외심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부처님의 머리털[螺髮]를 보자. 부처님이 나계선인이 되어 선정을 닦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온갖 새들이 날아 와서 머리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미동도 없이 정진에 몰두한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인천(人天)의 스승이란 관록(貫祿)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륜의 짧고 깊음에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단 한 시간이나 단 한 철 동안의 정진일망정 안팎이 여일한 정진이라면 품세 있고 내실 있는 정진이라 할 것이다. 안팎이 다르면 왠지 자신이 편하지 않고 남이 보기에도 여간 불편해 보이기 마련이다. 마음이 음충맞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한다. 상대와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의를 저버릴 경우이다. 그러나 수행에서 문제는 상대가 없다. 오직 자신의 내면과의 문제일 뿐이다. 안팎의 문제는 누가 종용한 바도 없고 무슨 요술쟁이가 트릭을 쓴 것도 아니다. 지극히 자신이 짓고 자신이 맥없이 끌려가는 일일 뿐이다.

참다운 수행자에게 시간은 숫자일 뿐
깨달아 공부 마치는 날이 진정한 해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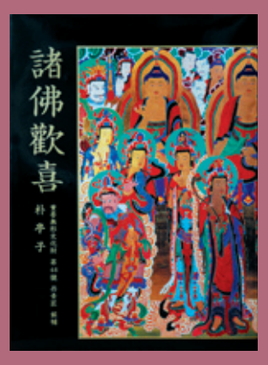


〈속등록〉에 나오는 정진에 몰두한 법화(法華) 선사의 눈썹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다. 선사의 당찬 일성에 다시 귀 기울여 보자. 이러한 선사의 일성에는 가식이 있을 수 없다. 선사의 자세에 제불보살의 환희가 넘친다. 선사의 주변에 선신의 옹호가 넘친다.

남의 셋방살이에 찌들려 살면서도 고대광실을 소개하는 어느 얄궂은 복덕방 영감의 삶을 애처로이 여긴다. 혹시 내 인생이 복덕방 영감이 아닌가 살펴보자. 아니라면 나는 공부를 마치고 고대광실에서 경대를 마주한 일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문자답 해보자.

동국대 선학과 교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러나온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투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불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여기 좀 와봐. 나무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수리아의 검-1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암흑 속의 두 소년⑥

칼키는 정령에게 지금 이 방에 갇혔던 인간이 그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말을 오래 참아왔던 듯 정령이 정신없이 쏟아낸 말들 중에 칼키의 주의를 가장 끌었던 부분은 바로 그 인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 갇혀 있던 인간이었는데, 정령 역시 그의 죄명이나 신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혼잣말을 자주 하던 인간이었지” 라고 정령은 말했다.

“여기선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곳이 얼음의 감옥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야. 물론 제정신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지금’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해야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나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간수가 지나가고 정령 역시 결국은 소멸되어 사라진 후, 계속 그 생각에만 골몰했어. 그런데 문득 내가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

칼키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든 날부터 날짜를 세어가기로 결심했으나, 방에는 딱히 기록할 만한 장소도 도구도 없었다. 그때 이 방에서 유일한 가구인 나무 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무라면 손톱으로도 어떻게 기록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때 이걸 발견한 거야. 정말 놀랐어. 저 빗금 수는 세어보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해 버렸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 고대문자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지 뭐야.”

탁자 아래에 새겨놓은 고대 문자의 내용은 향기에 관한 것이었다. 매번 달랐던 향기와 그걸 맡았던 시기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정령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향기는 이 감옥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변화였거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번씩 찾아오는 변화 말이야. 그래서 빗금 수를 다시 세어 봤어. 그리고 그 기간이 제법 일정하다는 걸 발견했지.”

무니는 그제야 칼키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바다 냄새도 그 파라자티에서?”

칼키는 “응!”하고 대답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무니에게 감옥에서 나갈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건 설명이라 할 것도 없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근처까지 오면 그 뿌리로 뛰어내리자는 거야? 그런 다음엔 나무에 매달려가다가 연못으로 풍덩 빠진다고?”

“그렇지. 이 기록에 의하면 거의 모든 나무가 바로 창 앞까지 다가왔다고 되어있거든.”

“그리고 헤엄쳐서 연못을 빠져나와 눈의 산을 걸어 내려간다?”

칼키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야! 어제 네가 그랬잖아. 눈의 산에선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이야. 아니, 그럼 네 말은…?”

무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적어도 ‘죽을 수는’ 있다, 이거야?”

칼키는 무니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탁자 아래에서 기어나가 버렸다. 무니도 얼른 칼키의 뒤를 따라나와 다시 말했다.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런 거냐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 다만 저 사람이 그어놓은 마지막 빗금 다음에 써놓은 말은 그래. ‘살지 못하면 죽을 수도 없다.’ 네가 그랬잖아.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나도 그래.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결국 죽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칼키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무니는 순간 바다 냄새가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칼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두 사람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창가로 올라가 밖을 쳐다봤다.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던 점이 아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다 무니는 문득 방금 전 칼키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지?’ 무니는 고개를 한두 번 갸웃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질문과 대답을 듣는 일에 이처럼 지쳤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무래도 언제나 묻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해놓는 난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무니는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질문도 있기 마련이다. 무니가 칼키에게 물었다.

“지금 오고 있는 저 나무가 언제쯤 이 밑으로 오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이야. 내가 여기서 바다 냄새를 맡은 지 40일이 다 되어가거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이 근처까지 오게 될 거야.”

무니의 얼굴을 쳐다보던 칼키가 다시 작은 창을 쳐다봤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리라고는 신도 미처 몰랐던 게 행운이지. 아무튼 우린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 물론 그래도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죽지 않는다고? 공중에서 튕겨 올라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응. 이 감옥 전체에 두껍지는 않지만 약한 결계가 둘러져 있거든.”

그랬다. 간수는 칼키에게 일부러 쳐놓은 것은 아니지만 신의 감옥이라는 특성상 그 주위에 저절로 약한 결계가 형성되었다는 것까지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칼키는 오래 전 그 인간의 기록을 통해 파라지타만은 그 결계하고는 상관없이 감옥 가까이



삽화 · 김흥인

까지 다가오곤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차피 방법은 이거 밖에 없어. 이때를 놓치면 우리 둘이 그냥 사이좋게 한 몇 백 년 지내야할 지도 몰라.”

“그건 사양이다. 난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여간 좋아. 운이 좋아서 나무뿌리를 붙잡고, 거기서 잘 떨어져서 연못에 빠진다고 치자. 그럼 얼어 죽지 않고 산을 내려갈 방법은 생각해 봤어?”

무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되어 또 칼키에게 질문했다. 그러다 금방 스스로 답을 찾아냈다.

“아! 괴로움이 없는 연못!”

칼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파라지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두 소년 사이에서의 대화도 서서히 줄어들더니, 사흘째가 되자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포기나 좌절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워있던 무니가 벌떡 몸을 일으켜 다시 탁자 위로 기어 올라갈 때도, 칼키는 벽쪽으로 돌아앉으며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무니는 등 뒤에서 들리는 칼키의 괴로운 뒤척임 소리를 들으며 ‘괴로움이 없는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나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지, 연못 역시 물결 하나 없이 잔잔했다. 그저 투명하고, 차가워 보이기만 했다. 그러다 무니는 문득 창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도 차지 않다는 사실이 의아해졌다. 눈의 산, 얼음의 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도 말이다. ‘칼키가 말했던 결계 때문일까?’ 무니는 궁금해졌지만, 이 질문 역시 그대로 삼켜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넘겨 버렸다. 그리고 저 멀리 시선을 돌려 허공에서 정지해버린 나무를 쳐다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라지타가 그들을 향해 아니 얼음의 성 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무니는 자기 눈이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비빈 후,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나 나무는 아까보다 더 가까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무니의 눈 속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어! 야! 여기 좀 와봐!”

무니는 다급하게 칼키를 불렀다. 자신을 부르는 무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칼키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무슨 일이야?”

“나무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칼키는 재빨리 탁자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무니 말대로 파라지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도 마치 이제까지의 기다림을 보상하겠다는 듯 얼음의 성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중이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무니가 칼키의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칼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무에게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저 정도면 정말 이제 곧 이 앞까지 올 거 같아.”

정말 그 거대한 나무는 이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그런 칼키의 말에 생기를 잃었던 무니의 눈빛이 반짝했다. 그러나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자 금방 그 눈빛이 흐려지고 말았다.

“또 이전처럼 멈추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차분하기까지 한 그 말투에, 한껏 기대로 치켜올라갔던 무니의 어깨도 다시 쳐졌다. 무니는 불에 모조리 타 버린 고향 마을에 도착했던 그날 밤 이후로, 어떤 것도 그때의 슬픔과 고통만큼 자신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감옥에서 지낸 지난 며칠, 그의 고통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과 각각의 고통이 주는 무게 역시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질수록,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괴로움 역시 점점 더해갔기 때문이다.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게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러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르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지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갈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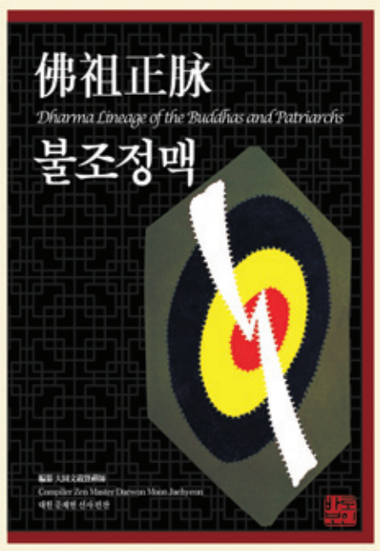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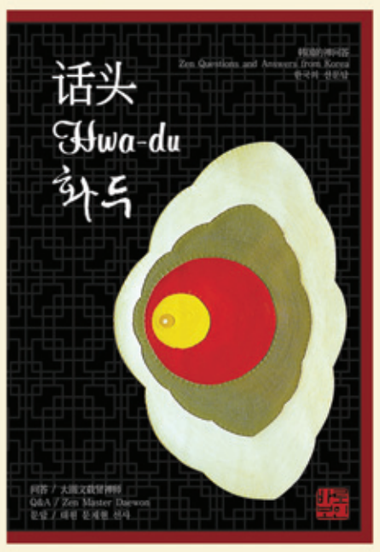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불조정맥 中英韓 3개국어판
화 두 中英韓 3개국어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3개국어판 〈 화 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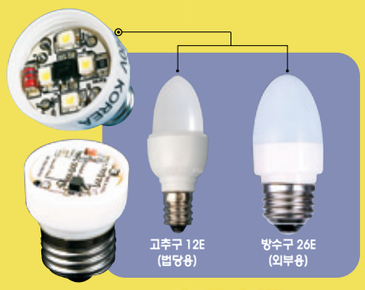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3개국어판으로 재출간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발간 예정

도서출판 바로보인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궁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몸과 마음은 하나!

용맹정진 기도수행에 건강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웰보녹용기력대보는 러시아산 녹용과 녹각,영지,당귀,천궁,오가피,작약등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정성으로 다린 제품입니다.

웰보녹용기력대보



■ 내용량 : 80ml × 60(액상)
단식이나 절식등에 효소와 함께 드시면 공복감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아 선식대용으로도 매우 좋으며 단식후 보식기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미효소



■ 내용량 : 3.5g× 90(과립)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입문의 : 02) 934-0160 / 010-4750-5899
입금구좌 : 농협 507046-56-051371 (임창현)

제 조 : 웰보H&F 제품허가번호 : 서울중랑164호
농 장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42-1번지

자 비 명 상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피고,
내가 웃으니, 내 마음속에 꽃이 핍니다.

장소 및 교육	기간 및 시간	문의처
동국대 사회교육원	1학기(3·4·5월), 2학기(9·10·11월) 화요일 주간반 : 오후 2~4시 야간반 : 오후 7~9시	02-2260-3114
천안 갤러리아 9층 문화센터	3·4·5월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041-559-9090
수원 영통사회복지관	3·4·5월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	031-201-8300
서울 역삼 청소년 수련관	3·4·5월 매주 목요일 오후 5~5시50분 오후 6~6시50분	02-550-3600 (교육 문화 당담자)
6기 출가자 지도자과정(서울 예정)	4·5·6월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011-222-9241 (마가스님)
재가자 지도자과정 (부산 예정)	4·5·6월	016-842-8776 (심혜영)
숲유아학교 아이숲 지도자 교육	(www.isoop.or.kr)	02-734-1915



사단법인 **자비명상** 마가 두손모음
cafe.daum.net/jurira 070-4159-2456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좋은 이미지,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실습
❖ 인간관계에 필요 조건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40년 노하우,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개인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신간 도서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외 17명의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이 한 데 엮어졌다. 책은 2010년 '법보신문'과 월간 '불광'에 연재된 법문 중에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법문들을 모은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법문을 듣지 못해도 책을 통해 법문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불광출판사 | 1만800원

행복



인도의 영적스승 요가난다의 '행복의 비밀'로 들어서는 안내서이다. 책은 '행복의 비밀'을 풀어가는 방법들로 가득하다. 저자인 요가난다는 서구에 본거지를 마련한 최초의 요가 스승이었다. 그는 실제적인 명상 기법과 이 원리를 삶의 전반에 적용시켜 내적인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기술을 말해 준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지음 | 김은희 옮김 | 지혜의나무 | 1만원

생활 속의 불교상담



김내성 문학상을 받은 여류 추리작가이면서 상담심리학 교수인 권경희가 '심리상담' 에세이를 모았다. 상담심리학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소설적 문장력과 불교의 딱딱한 경전을 쉽게 풀어 현대인의 심리갈등 해소 방법으로 응용했다. 현대인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고민과 갈등을 사례별로 분석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권경희 지음 | 도피안사 | 1만2000원

나의 마음을 위로하다



세토우치 자쿠초는 일본의 고대소설 〈겐지 이야기〉를 현대어로 완역하며 주목을 받은 밀리언셀러 작가이자,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님이다. 견딜 수 없는 번뇌의 끝을 딛고 다시 섰을 때 '출가'를 선택한 세토우치 자쿠초는 책을 통해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번뇌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전한다.

세토우치 자쿠초 지음 | 김욱 옮김 | 리수 | 9800원

"고려대장경은 모두 가짜다"



前 고려대장경硏 오윤희 소장이 말하는 대장경의 진실



2004년 해인사 대장경 인경불사.

올해는 초조대장경이 조판 된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대장경은 1500여 종의 문헌, 5200만 자를 수록하는 신화적 산물이다. 그러나 前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인 저자 오윤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대장경은 '다 가짜'라고 단언했다.

초조대장경의 저본은 송나라의 개보대장경이다. 저자는 "글씨는 개보대장경을 엎어놓고 베낀 것이며, 이 초조대장경을 다시 베낀 물건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돼 있는 재조대장경"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장경은 중국 것을 베꼈으니, 짝퉁의 원조를 제대로 베낀 셈"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경이 '단 하나의 오자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글자가 정연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말들은 낯부끄러운 얘기들이다"라고 말했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오자가 없지도 않다. 저자는 "18세기 초 일본의 학승이 확인해 보고 고려대장경의 정확도를 입증하기는 했지만, 재조대장경에는 교정을 한 기록인 〈교정별록〉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 안에도 오자가 여럿 나타난다"고 말했다.

흔히 대장경은 불교의 경율론 3장을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대장경에 포함된 1500여 종의 책 중 3장에 속하지 않은 문헌만 100여 종 가까이 된다. 기원전 2세기 서부인도를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계 메나드로스 왕과 스님의 논쟁이 담긴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그리스 철학과 불교철학의 역사적 만남을 다룬 저작이다.

아예 다른 종교의 성전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장경들에는 경교(景教)의 문헌 3종을 포함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1912~1925)도 들어있다. 경교는 중국 당나라 때 장안으로 들어와 정착했던 기독교의 일파, 이른바 네스토리우스파의 성서들이다.

저자는 "발칙한 가정이지만, 1000년이 지나면 대장경에 〈성경〉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장경은 순수하게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불교 경전이 결집되고 이후 1000년이 흐르면서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들을 꽤 많이 녹이고 있다.

5000만 자가 넘는 큰 규모의 문헌집성인 고려대장경은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광범위하고 뿌리도 희미한 문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저자는 송나라 개보대장경으로 시작해 초조대장경 그리고 재조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교정이야기를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대장경에는 적잖은 오자들고 있고,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저자 오윤희는 2005년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에 취임해 2010년 까지 '한일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고려대장경 이미지연구지원시스템' 등의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했다.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 오윤희 지음 | 불광출판사 | 2만원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9~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5	선림보훈 주해	이동형 편저	운주사
6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삶
7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8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정우서적
9	무문관 일기	동은	뜰
10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에 담긴 禪心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펴내



선(禪)은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등을 이어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다. 달마 대사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도 곧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은 언어 이전의 진실한 마음을 찾는 수행이다.

하지만 선지식들의 언행이나 선어록들은 언어나 문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종지를 전할 수가 없다. 선지식들의 언행을 기록한 선어록은 문자를 부정하지만, 그 부정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 표현된다. 선가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선어록은 모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술된 것들이다. 그 중 〈직지심경〉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안(公案: 화두)집이라 할 수 있다.

〈직지심경〉은 고려시대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 선사가 공안 위주의 선문답을 모은 깨달음에 대한 선의 지침서다.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경〉이 최근 충북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에 의해 현대인들이 알기 쉬운 선의 지침서로 새롭게 발간됐다.

스님은 2006년, 2009~2010년에 청주 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직지심경〉 내용을 정리해 불자들의 실제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을 펴냈다. 책은 〈직지심경〉 상권 가운데 중국의 조사 48명의 깨달음의 노래와 선문답을 모아 해설했다.

책은 간화선 수행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출가 수행자나 바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여가가 없는 재가들에게 깨달음이 결코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 차 마시고 밥 먹는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것임을 말한다.

자유인의 길 직지심경 | 덕산 역해 | 비움과소통 | 1만4000원 **이은정 기자**

아이를 꽃처럼 바라보고 천사처럼 대하라

초등학교 교사가 말하는 최고의 교육방식 세가지



오랜 기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자 민병직은 〈머리를 물들여 본 아이가 성공한다〉를 통해 부모가 최고의 교육자임을 언급하며 부모의 교육방식에 의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선 3가지의 교육방법을 강조한다. 첫째는 '아이를 꽃처럼 바라보고 천사처럼 대하라'이다. 아이가 가진 무한한 잠재능력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아이를 대하라는 뜻이다. 교육사상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며 아이를 꽃으로 바라보고, 아이를 보면 천사처럼 웃으라고 말했다. 즉, 인격체로서의 완전성에 대한 긍정만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단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라'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내가 큰사람이 되려고 갈망했던 것은 어머니가 나를 큰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믿음은 결국 프로이드를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교육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셋째는 '요구자가 아닌 조력자가 돼라'이다. 부모가 최고의 교육자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밖에도 저자는 아이를 칭찬하는 법칙, 아이를 천재로 만들기 위한 방법, 부모의 권위에 저항하는 아이들을 다루는 법 등 다양한 예시를 들어 자녀들의 교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총 10부로 구성돼 학부모가 필히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가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부닥친 교육 현장의 문제를 과감히 드러내며, 그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육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머리를 물들여 본 아이가 성공한다 | 민병직 지음 | 도피안사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법정 스님처럼 친절한 글로 읽혀지길 바라며”

송광사 분원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행복한 기원’ 펴내
삶에 지친 이들 위로하며 체득한 기원의 힘 글로 풀어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법정 스님을 떠올립니다. 법정 스님의 글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스님의 글은 불교를 알지 못해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르침을 일깨워줬다.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인 보경 스님은 자신도 “법정 스님을 닮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보경 스님은 법정 스님처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는 이야기를 담은 〈행복한 기원〉을 출간했다.



스님은 책 서문을 통해서도 “나의 말과 글의 산실은 공교롭게도 법정 스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송광사로 출가하기 전부터 법정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 ‘80년 광주 민주화의 봄’ 시절에 법정 스님의 광주 강연회를 잊지 못합니다. ‘원망을 버려라. 원망으로써 원망은 갚아지지 않는다. 원망을 버리는 길만이 그 원망을 갚은 길이요, 영원한 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인 나에겐 이 말은 충격이었고, 그 말은 곧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스님은 “이번 출간에 앞서서도 법정 스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떠올렸으며, 자신의 글쓰기의 자양분이 법정 스님이었다는 걸 입적하신 후에야 깨달아 아쉽다”고 밝혔다.

보경 스님은 도심 포교당에서 8년 동안 주지생활을 해왔다. 스님은 주지로 살면서 삶에 지치고, 시련에 아파하고,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왔다. 때론 그들의 투정을 받아주는 부모가 되기도 했고, 갈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기도 했으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 치료사가 되기도 했다.

스님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일은 좋은 길 가기를 ‘기원’ 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주지 생활을 통해 얻은 과정들을 지난 여름에 기록한 ‘주지일기’ 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자는 ‘나는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감추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일반 불자나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도움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 고민을 자신의 글로 풀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 노력했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일생 1만권 독서의 꿈’ 을 세워 실천해왔다. 스님은 “지금까지 한 반은 읽은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의 1만권 독서 읽기는 스님의 글쓰기에 상상력과 유연함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일까. 스님은 전작 〈사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이야기 숲을 거닐다〉보다 이번 작품에서 훨씬 더 탄탄하고 자유로운 문장력을 구사했다.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쉬운 경전 해설과 대중적인 글쓰기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이야기가 앞으로 불교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세상에는 ‘선(禪)’과 ‘속(俗)’이 있다고 생각한다. 속은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선은 초월하는 것을 말한다”며 “어떤 상황에 부딪히던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하려면 초월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번뇌에 끄달리기 마련”이라고 당부했다.

보경 스님은 송광사의 총무·재무국장을 지내고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과 교육국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주지, 보조사상연구원 상무이사,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아 대중 포교에 힘쓰고 있다.

행복한 기원 | 보경 지음 | 조화로운삶 | 1만 3000원 이은정 기자

문화소식

#이율배반 展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추천작가 이유의 ‘이율배반’ 사진전을 연다. 작가는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용산참사,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 태안기름유출사건 등을 작품으로 연출했다. 사건의 상호작용의 관계와 대립, 또 그 사이의 욕망과 욕망의 불충분 등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전시는 2월 27일까지 연다. (02)732-0732

#능인 스님 6집 앨범 발표



행복사라는 이름으로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는 능인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기획한 6집 앨범 ‘심향-마음의 향기’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찬불가는 물론이며, 디스코, 트로트, 민요,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타이틀곡인 ‘사랑해 영원히 너를’은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발라드풍의 곡으로 불자 외에도 일반인들의 큰 사랑이 기대된다.

#성파 스님 산수화展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이 지난해 ‘천연염색전’에 이어, 태평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3월 1일까지 산수화전을 연다. 스님은 1986년부터 불교문화와 전통공예를 접목시킨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사경, 서예, 천연염색, 도자기, 옻칠공예 등의 작품을 꾸준히 해 온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담한 붓질과 속도감이 느껴지는 산수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02)724-6322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①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지킬박사의 고통은 ‘어리석음’이 원인

젊은 청춘들에게 2월의 가장 큰 행사는 발렌타인데이이다. 솔로부대도 발렌타인데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뮤지컬을 예매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한자리에 모였다.

학식이 높고, 자비심이 많은 지킬박사는 인간의 선·악을 약품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발명한 약으로 스스로를 실험한 결과, 지킬 박사는 자신과 정반대의 인격체인 흉포한 하이드로 변신한다. 사악한 하이드의 힘이 너무 강해져 통제할 수 없자 지킬박사는 결국 자살하며 모든 것을 유서로 고백한다는 내용이다.

이중인격을 소재로 한 지킬앤하이드는 인간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선하고 예의바른 지킬 박사와 살인마 하이드가 하나의 육체에서 두 개의 인격체로 대립·갈등하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1인 2역으로 소화해낸 주연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킬박사는 양분된 내면세계 때문에 고통 받고 괴로워한다.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이런 양면성을 조금씩 지니고 있다. 우리는 가끔씩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면성도 지니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면 악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

불교에서는 악한 행동의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로 탐욕[貪]이다. 탐욕은 가벼운 동경에서부터 무성한 갈망, 금전욕, 명성추구, 관념에 대한 독단적인 집착에 걸친 상태들을 포함한다.

둘째로 분노[瞋]이다. 분노는 경미한 짜증에서부터 타오르는 분개, 격노 등을 포함한다.

셋째로 어리석음[癡] 이다. 어리석음은 정신적으로 삐뚤어진 성향이나 우둔하고 흐릿한 정신 상태 또는 도덕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탐·진·치 삼독은 서로 얽혀있다. 탐욕과 분노는 어리석음에 근거하며, 분노의 원인은 탐욕이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 악의 근원이며,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 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지킬박사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자신 속에 숨겨진 악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물로써 왜곡해 결국 두 개의 인격으로 분리해 악을 드러냈다.

불교에서는 악한 행동의 원인 이외에 해결책도 제시한다. 그것은 어리석음[無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알아차리기’ [知]이다. 화가 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화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악행을 막을 수 있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화는 절로 사라진다. 법륜 스님은〈행복한 출근길〉에서 “알아차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500회째 공연을 돌파하며 한국뮤지컬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화려한 흥행기록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이중적 갈등에 고통 받고 있다는 증거아닐까? 온갖 욕망으로 번뇌 속에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내 안의 하이드에게 이별을 고하자.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황벽선사가 입적 때까지 교화를 편 행화도량 황벽산 황벽사. 지금 대웅전을 복원중이다.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매화향기를 어찌 얻을 수 있으랴

황벽사1

안개가 완강하게 자욱하다. 미니 버스가 뱀처럼 구불구불한 사행천을 곁에 두고 황벽산(黃檗山)으로 가는 중이다. 개울물 위에 꽃무더기처럼 피어난 저 안개도 해가 뜨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안개가 아름다운 것은 밤공기와 아침공기의 치열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갈대꽃 같은 안개무더기를 보자, 내가 좋아하는 황벽선사의 게송이 하나 떠오른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삿일이 아니니
화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랴.
塵勞逈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승두(繩頭)의 승은 '목수가 기준 삼아 사용하는 먹줄' 이란 말이지만 선승은 화두를 들고 수행하므로 화두란 말로 의역해야 옳을 것 같다. 그러니 이 구절을 '한바탕 줄을 팽팽하게 당겨볼지어다' 라고 직역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하지 못한 애매한 소리다. 나는 말석의 문학도로서 이와 같은 뛰어난 절창의 게송을 접하면서 황벽선사를 흠모해 왔고, 선사의 가풍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당집〉에 나오는 선사의 행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님의 휘는 희운(希運)이고 복주(福州, 현 복건성) 복청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유년 시절에 고향인 복청현 황벽산 반야당(현 만복사)으로 출가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스님의 속성이나 출생 연대와 부모의 신상은 미상이다.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일까, 그래도 수긍할 수 없는 미스터리다.

스님은 키가 일곱 자인 장신이었고, 상호는 이마한 가운데에 사마귀가 난 호랑이 상이었다고 한다. 또한 천성이 활달해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언행은 대승의 천품을 지녔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언행은 출가 전부터 드러났다. 친구들과 천태산으로 가던 길에 한 스님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개울은 장맛비로 불어나 있었다. 스님은 친구들과 함께 개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건널 수 있는지 궁리하며 멈추어 섰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그 스님이 어서 개울을 건너가자고 재촉했다. 할 수 없이 스님은 자신이 있다면 먼저 건너가 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옷을 걷어 올리고 무사히 건너가 저쪽 개울둑에 오른 뒤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었다. 이에 스님이 먼저 건너간 스님의 행동에 실망하여 소리쳤다.

"이 도적놈아! 애초에 스님을 몰랐던 것이 한이다. 진작 알았더라면 때려서 다리를 분질러 놓았을 것이다."

그제야 그 스님이 스님의 큰 마음을 읽고는 탄복했다.

"대승의 바탕이오. 혼자서만 개울을 건넌 나 같은 중하고는 다르오!"

훗날 스님이 출가한 뒤 만행하다가 백장 선사를 참방하게 된 계기는 어느 노파를 만나고 난 뒤였다. 장안의 저잣거리에서 탁발하며 머물 때였다. 어느 한 집에 가면 꼭 문이 닫혀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저잣거리 노파만나 선문의심 털고, 백장선사 찾아가 깨달음 이루다

그 집의 노파와 마주치게 되었다. 노파가 스님을 보자마자 말했다.

"엉성한 스님일세!"

스님은 노파의 타박을 듣고 나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항의했다.

"밥을 주기는커녕 어찌하여 엉성하다고 하십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겨우 그 모양이니 어찌 엉성하다고 하지 않겠소."

노파는 공부하지 않고 탁발이나 하러 다니는 스님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노파의 말을 알아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노파가 스님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공양을 올렸다. 노파는 이미 스님의 얼굴과 행색을 보고는 보통 스님이 아닌 줄 알고는 공양을 마친 스님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낱낱이 물었다.

이에 스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었고, 젊은 날 충국사(忠國師) 회상에서 공부했던 노파는 다시 미묘한 관문을 일러 주었다. 이윽고 스님은 노파의 말끝에 그윽한 선문에 대한 의심을 떨쳤다. 잠시 후 스님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노파를 스승으로 섬기겠다고 하자 노파가 거절했다.

"나는 여자로서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니 강서에 계시는 백장 대사를 찾아 가시오. 선림의 선지식으로 여러 봉우리 중에 우뚝 솟아 있다고 하니 스님은 그분에게 가시어 묻고 배우시오. 뒷날 인천의 스승이 될 것이니 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황벽은 백장 선사를 찾아가서 공손하게 예를 갖춘 뒤 물었다.

"예부터 전해온 법을 화상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백장 선사가 침묵만 하고 있자, 황벽이 말했다.

"뒷사람들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벽의 이 말은 예부터 전해온 법을 자신이 공부하여 잇겠다는 발심이기도 했다.

백장 선사가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한 사람의 공부인으로 보았었지!"

백장 선사가 방장실로 들어서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황벽이 말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한마디 허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만족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뒷날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후 황벽은 백장 선사를 시봉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조당집〉에는 선사들의 행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뼈와 골수만 전하고 있어 그 이면의 심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보통사람들의 이해를 위해 조금씩 의역했지만 당시 선사들의 내면까지는 읽는 이가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백장 선사에게 입실을 허락받은 황벽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음이다. 마치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터이다. 입실을 허락한 백장 선사에게 황벽이 감개무량하여 '저는 그 말씀만으로도 만족할 뿐입니다!' 가 바로 그것이다.

황벽의 호랑이 상은 스승인 백장 선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 어느 날 백장 선사가 황벽에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는가."

"산 아래서 버섯을 따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다는데 너도 보았느냐."

이에 황벽이 호랑이 소리를 내자, 백장 선사가 허리춤에서 손도끼를 꺼내더니 찍을 자세를 취했다. 황벽은 잽싸게 백장 선사의 손을 잡더니 따귀를 후려쳤다(시늉만 한 것을 뒷사람이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때렸다고 기록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백장 선사는 껄껄 웃으며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저녁이 되어 만참법문 때 백장 선사가 말했다.

"대중들이여, 산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으니 잘 살피라. 노승도 오늘 아침 한 입 물렸느니라."

여기서도 백장 선사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는데 '한 입 물렸다' 고 대중들에게 알림은 지금부터 황벽을 자신의 법을 이어나갈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중이 아니었을까.

이후 황벽은 백장사를 떠나 사숙이 주석하고 있

"장로의 몸집은 큰데 삿갓이 작구나." "이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는 안휘성 남전사로 가 남전 선사 회상에서 머문다. 사숙 중에는 서당도 있었지만 황벽은 남전 선사의 가풍이 더 자신에게 계합됐던 것 같다. 남전 선사의 제자 중에는 조주가 있고, 신라로 돌아와 사자산문을 개창한 도윤이 있다. 어느 날 남전 선사가 나물을 다듬으러 가는 황벽을 보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가."

남전 선사가 묻는 요지는 '무엇을 견철하고 있느냐' 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황벽은 사숙의 말에 걸리지 않을 기회를 엿본다.

"나물을 다듬으러 갑니다."

남전 선사는 이미 나물 다듬는 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시 물었다.

"무엇으로 다듬는가."

그제야 황벽이 남전 선사 눈앞에 칼을 번쩍 들었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들었다. 빠져나갈 완벽한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남전 선사는 황벽의 선기를 시험해 보았으므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나물을 다듬는군." 하고는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남전 선사와 황벽의 문답 중에는 '짚신 값 돌려달라' 는 환초혜전(還草鞋錢)이라는 공안도 있다. 남전 선사가 물었다.

"정(定)과 혜(慧)를 함께 배워서 부처님 성품을 밝게 본다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견해인가."

"부끄럽습니다."

"장 담그는데 부은 물 값은 그만 두더라도 짚신 값은 주어야 할 게 아닌가."

물은 값이 없는데 짚신은 값이 있는 물건이다. 깨달음을 위해 돌아다니느라 많은 짚신이 닳았을 테니 이제는 그 짚신 값, 즉 깨달은 경지를 내보이라는 말이 아닐까. 황벽은 남전 선사에게 한 점 침묵으로 자신의 경지를 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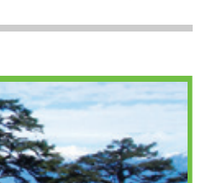
황벽은 남전사에서 다시 홍주의 관사(官寺)인 개원사로 떠난다. 그날 남전 선사는 산문 밖까지 나와 황벽을 전송해 주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데에도 법이 오갔다. 남전 선사가 황벽의 삿갓을 벗기면서 말했다.

"장로의 몸집은 큰데 삿갓은 작구나."

"그래도 이 작은 삿갓 속에 온 우주가 몽땅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삿갓이 덩치 큰 황벽에게는 작았을 수도 있었지만 황벽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바로 남전사를 떠났다.

마침내 의풍시 황강현 황벽촌에 이르니 안개가 걷힌다. 촌부들이 햇볕에 곡식을 말리고자 이른 아침부터 멍석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순례 중에 보았던 사하촌 중에서 가장 외진 곳 같다. 아직도 이곳의 늙은 촌부들은 조랑말을 타고 다니고 있다. 갑자기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선사는 왜 이런 오지 황벽산으로 들어와 회상을 이루었을까. 황벽사는 선사가 입적할 때까지 교화를 편 행화도량이었던 것이다.〈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 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달마에서 혜능대사까지 8일
• 출 발 : 4월 7일 (1차), 5월 12일 (2차)
• 동참금 : 1,690,000원 / 1인

대혜종고 / 고봉원묘선사 천목산 4일
• 출 발 : 3월 29일 (1차), 5월 21일 (2차)
• 특 전 : 890,000원 / 1인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2011년 3월 14일 [8일] (1차), 5월 23일 (2차)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플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위대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탄생에서 열반까지 근본화두와 함께 떠나요~
• 출 발 : 2011년 3월 8일
• 동참금 : 2,390,000 (팁불포함)

* 캄보디아 앙코르왓트 5일
- 앙코르와트, 바푸온사원의 전설
- 3월 11일 / 990,000

* 실크로드&불교로드 7일
- 병령석굴 - 트루판 - 돈황석굴 - 우루무치
- 4월 12일 1,850,000 / 1 인

* 불탑의 나라 미얀마 / 방콕 8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방콕
- 4월 14일 1,990,000

* 구화산 / 보타산 6일
- 지장보살 / 관세음보살화현처
- 4월 10일 1,090,000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기도, 성취, 영험 도량

각종 난치병, 치매, 사업성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수강생 모집
체계적인 이론! 최고의 적중률!
일용백사에서의 폭넓은 활용성!
수강신청 02)2260-3728 동국대
강좌문의 02)816-2115 이우산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무형문화재연수원 (작법)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본과)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전문교육대학 관 해동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연수원

빙의 퇴마 전문

정신질환, 영가장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들, 상담 치료 전문
일주사 주지 일주 합장
061)337-9989
017-624-9989

전통 범음 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물,바라,나비무,화청,천도재,49재,
점안식,수륙재,영산재,상담학
각 사암 행사전문.
선착순 무료강의 모집
031)953-3328
010-8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천도재 49재 각종의식

모든행사는 좀
(가슴의 혼)으로 통합니다.
천수바라, 승무,
살풀이(진혼무), 창작, 극락무
• 법사의식대학
• 무형문화재
• 춤추는포교사 천수화(대구 팔공산)
019-506-7552

사주(명리) 지도하여 드립니다

사주(명리) 배우느라
고생하신 분,
문의하여주십시오.
개인지도, 그룹지도하여 드립니다.
스님, 교임포교사 환영합니다.
010-8606-6151 현인 스님

불교 • 경전대학모집

3월 10일~11일 입학
(주 · 야)
부산시 수영구 밀납동
진흥사
051)755-1415

수 강 생 모 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 (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011-9476-9001

명 리 특 강 (고 급 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月 火 水 木 金
국내외 명리저서 분석과 뛰어넘기
대만 하건충과 칼용 분석 심리학의 관계성
심리 게놈지도 작성
"명리 법전" 한중일 동시출간 준비 중.
■ 장 소 : 각 지방 KTX 역사, 회의실
■ 개 강 : 2월 28일 ~ 5월 (3개월)
■ 시 간 : 오후 1시 ~ 4시까지 (요일별)
■ 연락처 : 010-5858-1191 / 043-628-2191
한중일 명리원

전통의약 비법전수 (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등으로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
010-6285-370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법당보살
공양주 모십니다
010-2828-0664
▷개원사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10세 이상 동자로 살아갈 인연을 받습니다.

현재 동자스님 3명,
모집인연 3명
011-9393-4965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운수리 보성사

옛날 물건 무조건 삽니다

도자기, 그림,
고가구, 기타
출장 감정 해드립니다.
동진불사
010-8690-9698

명리학 무료 특강

사주,궁합,택일,성명학
초급 3개월 완성
한문 모르시는 분 한자교육
명심보감 사서삼경 특강
남녀 단체 환영 (수양하실 분 기숙가능)
상도서당 명리원
043)852-1952
011-2090-8001

각종 불사 상담 (단청, 탱화, 개금, 신축)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문화재청 화공 기능 보유자
011-9387-1518

절 운영하실 비구님 스님 모십니다

063)543-5551
010-4427-2256

조계종 창종 비구로서 부처님법을 전하고자 정법도량(포교원)을 운영할 공간을 찾습니다.

100평이상 되는 공간을 7년이상 임대해줄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지역
010-5714-5507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경남 양산
011-574-3303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대중생활할 도량도 좋습니다
▷50대 비구
010-8677-1277

옴훔훔마니달리훔타칙

• 이 진언으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동양철학 천지명리 제14기 수강생모집

자연이치학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에 결부한 하도락서 진수를 알리는 타 철학추종을 불허하는 천지명리학 학문으로써 관심있는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타 명리를 접하였으나 이해가 잘안되고 임상이 안되는분 환영합니다. 승가로부터 전해오는 비법입니다.
• 명리학 :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연구반
• 부 설 : 풍수학 과정 타로학 과정
*스님은 수강료 반액 할인우대
수료시는 명리학사자격증 수료증 회원증 수여함
철학관운영 및 사암스님, 연구과정수료자는 강사자격증 수여함

천지명리학회 한국본부 진광불원 강의 : 학회 회주및 학장 법상스님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424-10 망미역4번출구
051)758-3599 휴: 010-3583-3556
http://www.sajucall.com (사주콜) E-mail:jkcho2002@korea.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1-424-5555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거제도
010-8559-48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이하, 경남 거제
010-7169-9878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공양주 및 사무실 직원 구합니다

PC가능한 분,
숙식 가능하신 분.
▷울산
052)275-0829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 지어
짧은세상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1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비 구 니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경기도
011-9491-9227

부처님(불상) 모시고자 합니다

불사 인연께는 1000일 특별기도 해 드립니다
(비구스님)
010-5407-8034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2월 23일 (수) 오후 2시
3월 2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옆

大韓佛教謁平僧伽會

弘法과 救濟中生의 참 모습을 보일 慶州李氏 승려로 宗團 구분없이 一家 스님들을 會員으로 모십니다.
많은 동참으로 자성의 죽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5年 2月7日

초대 會長 萬翁 道一 (전 해인사 주지)
연락처(수석 부회장) 弘山 玄佛 (禪農敎團 총재)
041)943-7620 / 016-850-1208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영 구 위 패 봉 안 접 수

조상님, 여러 인연의 영가를 영구히 명부전에서 반혼재후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명절,백중 무료재사봉행)
- 일반영가 1분당 20만원
- 태아 및 기타영가 1분당 10만원
문의 : 011-9371-8080
고찰 팔공산 묘적암 위패봉안실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사 : 27평, 30평
- 부지 : 25,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인천
- 법당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20평(사용평수 15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암자.토굴(급)안내

- 위치 : 목포시 유달산 중턱
- 건물: 법당, 요사, 부속건물 등
- 특징: 법당 내 샘물
- 전망 좋음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9-270-661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포항근교
- 법당 목조 20평
- 요사채 40평
- 지하수, 심야전기
- 건평 680평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135-9733

명 당 터 안 내

- 위치: 지리산 청학동
- 대지 약 450㎡
- 본채, 사랑채 있음
- 기도처, 수양지, 양택, 기타
- 가액: 9500만원

010-2029-2932
박 처 사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전 세 : 10억

- 위치 : 서울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5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8억 5천만원

부산 온천장 사찰

- 총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든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공기좋고 조용한곳
- 3층건물 (건평 95평)
- 대지 80평
- 가액: 3억 6천만

010-8640-6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3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1억 3천만원

043)852-0533

부 처 님 자 리
(참선방 요양원)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변역 잠실역 1시간 內거리
- 평수: 3000평, 4000평, 5000평(선택)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쾌적하며 접근성이 매우양호
- 가액: 평당 22만원(주인직접)

010-2215-3657

포 교 원 안 내

대구 불사가 일어나는 포교원. 말이 필요없다

- 최고의 위치, 최상의 지역, 불심의 고장
- 앞에는 큰 대로 뒤는 산
- 3층 건물 중 3층 (옥상 산신각 사용가능)
- 49평, 법당 15평 • 삼존불, 아미타, 지장, 관음(후불도)
-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큰방1, 작은방1
- 공양간, 욕실, 화장실 • 모든 것이 최신시설로 됨
- 몸만 오세요 비구니, 보살님 한해서
- 가액: 5천만원 (가격절충)

010-5015-2267/053)634-2257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양
- 면적 270평
- 대웅전 23평, 요사채 33평
- 산신각, 창고
- 50여년된 오랜 사찰
- 원하시는 금액에 양도해 드림

010-9215-476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경찰 종합학교 뒷산)
- 평수 1,800평, 대지 200평
- 나머지는 문전옥답
- 신축사찰, 시설완벽
- 방7, 주방, 목욕탕, 실내
- 국도에서 800M,
- 아산시에서 포장완료

010-5224-6239

토 굴 안 내

- 위치:충북 옥천군 안남면
- 평수12평, 2필지
- 건물 1700만원
- 토지세 1년에 25만원
- 텃밭, 주차 有
- 스님, 철학인, 일반인
- 모두 가능한 도량

010-9288-0048

사 찰 안 내

- 충남공주시유구읍연종리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 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8억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부근
- 부지: 530평(종교용지)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조)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 (야외화장실, 차고, 창고)
- 가액: 전화상담 방문 후 결정양도

010-2222-31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소재
- 부지 : 약 100평
- 법당 : 25평(목조, 단청)
- 요사 : 4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유동인구 많은 도심 사찰입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소재
- 부지 : 15,000평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90평(1,2층) • 산신각 : 10평(닷집)
- 기타 : 연못, 석불, 석등
- 가액 : 5억 2천만원
- 특징 : 불사금 20억이상 소요된 대가람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 서울 010-5828-04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중학교앞)
- 3층 37평중, 법당 20평,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영단, 침실, 직무실, 거실겸 주방
- 계단 실내해우소, 뒤에 마당공간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739-7788
010-9282-5885

포 교 원 안 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 3층건물 중 3층
- 평수 67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주차시설 무한가능함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9924-00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완산동
- 건물 3층 47평
- 대형버스주차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벽

010-3772-5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신각, 종각
- 총평수 190평 • 가액: 2억

- 위치: 경북 경산시(절하기 좋은절)
- 대지: 180평
- 두충나무 30그루 있고 주택 43평 • 가액: 2억

011-532-5919

속 가 암 자 사 찰

지역미공개

- 노승소유 속가 - 2500만원
- 암자 부지 임대 - 2900만원
- 포교원 읍내 상가지역 - 4억
- 사찰 건 200평, 지 1만 4천평 - 10억

이 4건을 각각 양도 희망함

010-4534-4949 /010-3538-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3천만원

010-3112-351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 4층건물 중 2층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5호선 전철 1분거리
- 현재 법회중

011-716-3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쌍문1동
- 우이천 바로 앞, 차도 5분거리
- 공기 맑음
- 법당1, 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약 15평
- 보증금 1300만원 월 20만원

010-5470-1892

토 굴 안 내

- 위치:경남 창녕 우포늪(정남향)
- 면적: 총대지 320평
- 부대시설: 법당, 조립식 철골 24평(단청필) 석탑,화실,조립식 24평 요사,적벽돌기와 27평,황토방 4평
- 가액 : 1억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사 찰 안 내

- 위치 :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대지 :19,217㎡(5,830평) 건물 : 4개동 (법당, 요사채 등)
- 법당, 수미단(부처님 3불, 소불)

010-4225-0012
02)403-3333

부산시내최고중심가

- 4층 약 40평
- 법당, 친견실, 종무실
- 5층 방4칸, 공양간
- 시설비 상담후 절충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 평수 25평, 단독주택 2층, 법당 (관음보살님) 방2, 공양간
- 욕실, 화장실, 살림일체
- 가액: 삯월세 년 250만원 (시설비는 오셔서 결정)

010-3648-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부근
- 법당 1, 방2, 산신각, 공양실 28평, 평수 약 1천평
- 모든 시설 완벽
- 전세 3,500 만원(양도도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34-5520
010-8854-2754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 (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산 1만 5천평 포함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 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좋은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000평, 임야 500평
- 별도부지 230평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011-373-0697

사찰(급)안내

- 위치 : 진천-오창-천안 경계선
- 부지 : 2,000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요사채 2층건물
- 1동 1층건물 3동 미륵佛, 산신, 용왕님(방많고 깔끔하게 잘지었음)
- 가액: 12억 5000만원 (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1-412-246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뒷산에 폭포가 있는
- 서울시내 사거리
- 상가 건물 3층중 3층
- 포교원으로 15년 자리한 60평
- 월세 62만원
- 시설비, 보증금 총 57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1-496-6417

임 법 당 안 내

- 위치: 충북 음성 삼성 일죽IC에서15분
- 대지 : 180평+국유지밭40평
- 철골조립식 1층57평 (법당20)+2층25평
- 산밑. 마을뒤. 심야보일러
- 가액 : 1억 6천

043) 881- 4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공찰주지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1억 3천만원)

017-787-6666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외동
- 1층 50평
- 아늑한 포교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011-9322-8888

포교원안내

- 위치: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 3분거리)
- 4층건물중 2층 40평
- 보증금 10,000,000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32)655-6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메뚜기 노는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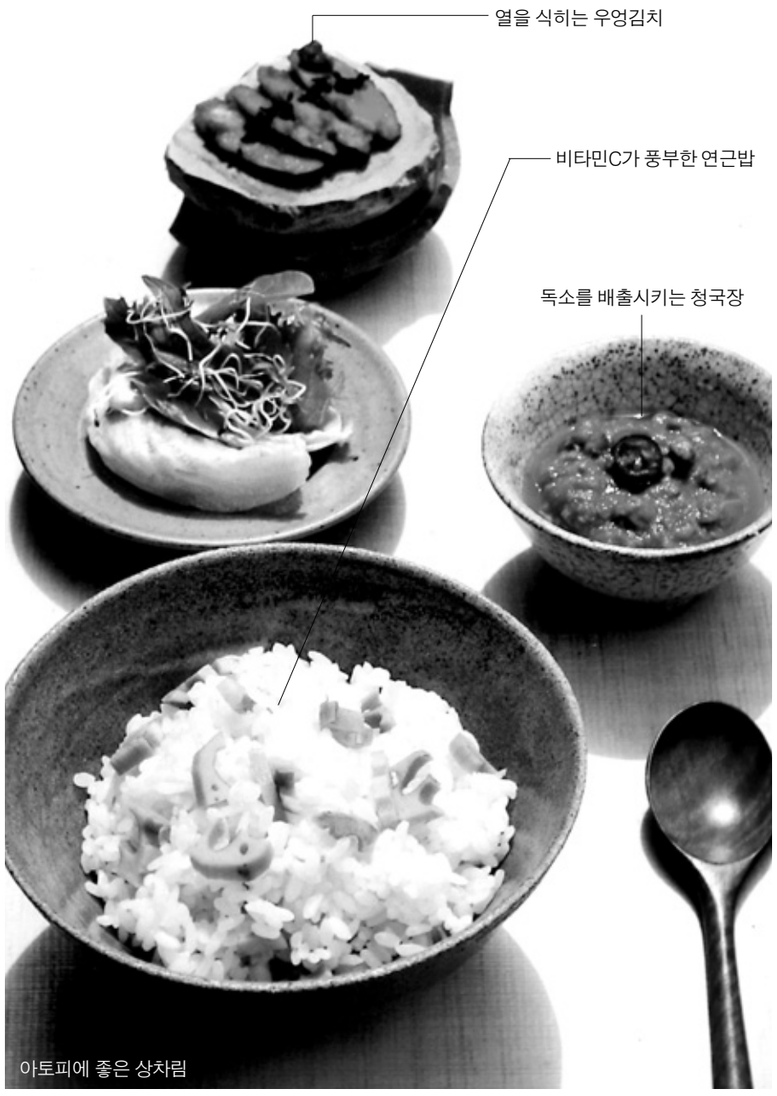
010-5054-6782

위가 불편하면 감자즙 한컵과 찰밥을

"모든 음식이 약이다" -〈사분율〉의 약건도 中-

내가 먹는 음식은 약이 되어야 하고 약은 곧 음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상태가 달라진다. 스스로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채식인 사찰음식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감기, 몸살, 설사, 위염에서 아토피까지 질병을 다스리고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준다. 2월 마지막 주, 겨울의 끝자락에서 병을 다스리고 약(藥)이 되는 사찰 음식을 소개한다.



오신채와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의 사용을 금하고 조리한다. 오신채는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다. 홍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채소로 양파를 대신 넣기도 한다. 〈수능엄경〉에는 "모름지기 세간의 오신채를 끊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익혀 먹으면 음욕을 일으키고,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증대 시킨다"고 적었다. 즉, 오신채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식품이다. 게다가 오신채는 향신채로 채소와 어울리지 않는다. 채소를 조리할 때 오신채를 넣으면 고유의 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김치를 담글 때에도 젓갈, 파, 마늘을 넣지 않는다. 생강, 고춧가루, 간장, 소금, 호박만 사용해 시원하고 잡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제 때 먹은 밥이 보약

'때 아닌 때는 먹지 말라.' 경전에서는 음식을 넓은 의미의 약이라 했다. 시약, 시분약, 칠일약, 진형수약 네 가지로 구분 되는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바로 시(時)약이다. 시간으로 먹는 약 이라는 뜻이다. 스님들은 아침 5~6시, 점심 11~12시, 저녁 5~6시에 정확히 시간을 지켜 공양한다. 재가자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자신의 일정에 맞춰 최대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자.

사실 현대인들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아침을 굶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 외식으로 한번에 포식 한다. 홍승 스님은 "음식은 우리의 몸을 지탱시키는 수단이다. 식사시간이 제멋대로인 것은 단명의 원인이 된다"며 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우려했다.

내 몸 컨디션에 맞춘 보약 밥상

스님들은 아플 때 밥상의 음식부터 바꾼다. 사찰요리에서 음식은 식(食)이 아닌 약(藥)이기 때문이다. 운아 스님은 "사찰의 아침상에 자주 오르는 죽 한사발이야말로 가장 소박하면서도 몸을 비우는 약입니다"고 말한다.

감기

산사에서는 능이버섯 국은 감기에 특효약이다. 혈액을 맑게 해주는 능이버섯과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는 고추에 소화를 돕는 무까지 더해 산사의 명약이 완성된다. 흰 쌀밥에 능이버섯국, 비타민이 풍부한 곰취김치와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 볶음은 감기 예방에도 좋은 밥상이다. 곰취김치 속 생강이 건강한 기운을 두루 퍼지게 해줄 것이다.

몸살

몸살이 심하면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 달달한 늙은호박 보양죽 한사발이면 등골에 땀이 쭉 나고 이마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며 힘이 솟는다. 한방에서는 늙은 호박을 감미롭고 따뜻하며 보중, 자양, 강장의 효능이 있어 기운을 생기게 하는 약이라 말한다. 늙은 호박에 당귀나 백작약, 천궁 같은 약재를 넣고 함께 끓이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설사

배가 아프다는 건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다. 이때는 소화가 잘되는 밥상이 최고이다. 따끈한 흰죽과 독성물질을 분해해주는 매실 장아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김치와 대추조림은 배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는 음식들이다. 특히, 매실의 피크르산은 식중독이나 독성을 분해하며, 강한 살균 효과가 있어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편도선

편도선으로 힘들 때는 따끈한 물에 죽염을 풀어 목을 지지고 열을 내리는 치자밥과 요오드 성분이 많은 다시마,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로 치유를 해보자. 특히, 도라지는 가래를 삭이고 혈당을 낮추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목이 안 좋을 때 꼭 챙겨먹는 재료다. 그저 깨끗이 씻어 꿀에 담그는 도라지청도 편도선에 효과 만점이다.

위염

타고나기를 위가 약하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에 무리가 생겼다면 일단,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밥상을 차려야 한다. 먼저 감자즙 한잔으로 속을 달래고, 푹 처진 찰밥에 부드러운 두부카레, 맵지 않은 양배추 김치를 곁들이면 버겁던 속이 편안해 질 것이다.

아토피

아토피는 온 가족의 식습관을 바꿔야 낫는 병이다. 자연의 향내가 가득한 약 나물로 식탁을 준비하자. 피부로 올라오는 과한 열을 잡아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연근밥을 짓고, 청국장과 아삭한 우엉 김치, 치자즙샐러드처럼 전체적으로 열을 내리는 식단을 준비하자. 입에 달고 쉬운 음식은 상에서 내려놓자. 기름은 적게, 소금은 천일염으로, 장은 집에서 직접 담근 장으로 입맛을 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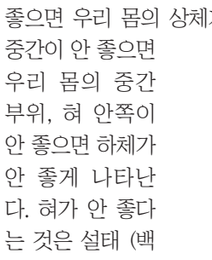
참고서적 〈1식3찬 보약밥상〉 수작 걸다뀌, 〈자연을 담은 사찰음식〉 클리어마인드뀌

천진영 기자 chun4q@gmail.com

감기	쌀밥+능이버섯국+곰취김치+도라지볶음
몸살	늙은호박죽+열무김치+더덕장아찌+콩비지전
설사	흰쌀죽+장김치+매실장아찌+대추조림
편도선	치자밥+다시마국+도라지생채+콩다시마조림
위염	찹쌀밥+두부카레+감자즙+양배추김치
변비	톳밥+매생이국+고추장미역무침+밤우엉장아찌
만성피로	구기자마죽+홍삼샐러드+고추김치+청국장
아토피	연근밥+치자즙샐러드+우엉김치+청국장
두통	표고버섯 죽+재피장떡+국화마전+국화차
비만	당근죽+새송이장아찌+다미사조림+무장아찌

건강칼럼

혀·소변으로 하는 건강체크



이경제 원장
래오 이경제한의원

매년 같은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 보는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혼자서 매일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몸 건강검진센터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언제든지 검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검진센터가 혀(舌)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치질을 할 때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혀를 봐서 건강을 체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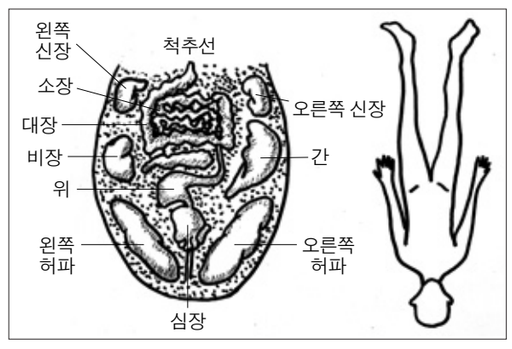
혀는 우리 몸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혀끝 부분이 우리 몸의 상체이고, 안쪽 부분이 하체를 반영한다. 혀끝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상체가 안 좋고, 혀의 중간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중간 부위, 혀 안쪽이 안 좋으면 하체가 안 좋게 나타난다. 혀가 안 좋다는 것은 설태 (백태, 황태, 흑태)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혀는 작은 내 몸 설태로 건강안다

설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1. 설태가 없는 빨갛고 깨끗한 혀는 100점 건강이다. 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것이다.

2. 하얀 설태의 혀는 80점 건강이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가스가 차 있고 근육의 피로가 있다. 혀 끝에 백태가 있으면 폐, 기관지의 기능이 약하고, 대개 감기에 걸려있을 때 혀끝에 백태가 많이 생긴다. 혀 중간에 백태가 있으면 위장, 소장의 기능이 떨어져 뱃속이 더부룩한 경우이다. 혀 안쪽에 백태가 있으면 허리근육통이나 하체가 부실해진 경우이다.



3. 노란 설태의 혀는 70점 건강이다.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이다.

4. 두껍고 진한 노란 설태의 혀는 60점 건강이다. 본인도 여러 증상을 느끼고 늘 피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것이다.

5. 검은 색의 설태는 당장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태이다. 암환자의 경우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영양결핍으로 인해 검은색의 설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한 구별 점은 검은색 태의 두터운 정도이다. 두터우면 중병이고 얇게 색깔만 있으면 괜찮다.

두 번째 검진센터는 소변이다. 소변은 혈액순환의 찌꺼기이다. 소변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한강의 하류가 깨끗하면 상류 · 중류는 당연히 깨끗할 것이다. 소변을 한강 하류에 비유할 수 있으니, 소변의 깨끗한 정도로 혈액순환을 알 수 있다. 좋은 소변은 맑고 투명하며 시원하게 보는 것이다.

소변을 투명하고 시원하게 보면 건강한 것이고, 색깔이 진하거나 자주 보고 찔끔찔끔 나오면 질병이 있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는 소변에 거품이 많다. 농담으로 이를 카푸치노 소변이라고 한다. 소변을 볼 때 전보다 거품이 많아지면 혈당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암환자는 소변 색깔이 위스키 색과 같다. 암이 생기면 체중이 빠지게 되고 수분이 고갈되어 소변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위스키 색처럼 진한 색이 된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남녀 모두 방광염이나 항문방광괄약근 기능 저하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

건강이 좋으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소변색이 투명하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한약이나 음식을 먹으면 소변이 투명해지고 시원하게 본다. 질병이 있으면 소변색이 진해지고 탁해지며 찔끔찔끔 보게 된다. (02)576-7575

"친견용 명품(名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 미리 알아 먼저 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임CD 프로그램과 육임 친견용 활용서 -

● 지난 10년에 걸쳐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간편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특히 귀신 · 빌미부정 · 귀물 · 묘지탈 적시 및 그 해소 방법이 백미 입니다. 유사(類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 오행초보자도 즉시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 원터치 기능에 의한 당면 정황을 미리 알아 철저히 구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승인 없이 여러곳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가 500만원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第1券 甲子旬)
(甲子日 · 乙丑日 · 丙寅日 · 丁卯日 · 戊辰日 · 己巳日 · 庚午日 · 辛未日 · 壬申日 · 癸酉日)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사주를 빼지 않고도 방문 시간별로 즉시 펼쳐 정확한 일생사 및 나이별 운세 등등 인생전반을 미리 판단합니다.
■ 60갑자일 각 순별 10일치씩 전 6권 / B4규격
정가 350만원

www.taotemple.net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 육임컨텐츠개발전문회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 농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 ⑤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 그렇다면 깨달은 이들은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불교의 현실 참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 위로 진리를 찾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같은 당위의 가르침 때문이 아닌, 깨달음 자체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참여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은 2월 10일 금강선원(원장 혜거)이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에서 보살은 초기불교의 이상향인 아라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밝혔다.

현해 스님은 1935년 경남 울산에서 9남매의 여덟째로 태어났다. 1958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만화 스님이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조계종 제3 · 7 · 10대 종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지금은 월정사 회주로, 주로 서울포교당인 법종사에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월정사 회주 현 해 스님, 탄허기념박물관 명사초청 보살사상 선양법회서 불교사 흐름 속 보살 조명

초기불교에서 보살사상 변천

불교가 처음으로 파가 나눠진 때는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100년 뒤입니다. 2차 결집인 비사리 결집에서 10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중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당시 스님들은 비교적 융통성이 있는 진보적인 스님들과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스님들로 나뉘었습니다.

250개의 계율 중 밥은 하루 한끼를 먹되 정오가 지나면 불식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스님들은 밥을 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 정오 태양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마디 지날때까지는 밥을 먹는 것을 허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계율 중 3일 이상분의 소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스님들은 소금을 갖되 소뿔에 담을 정도를 갖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에 대한 것입니다. 불강서는 먹고 자고 입고 아플때 쓰는 약을 시주하는데 이 네가지를 큰 시주라 해 사사시주(四事施主)라 합니다.

그 당시 최고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 스님인 야사 스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절대 안된다. 조그만 계율이라도 어긴다면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점점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야사 스님이 장로 스님 700명을 모아 2차 결집을 합니다. 또 이 2차 결집에 대해 반발하는 스님들 900명이 따로 모여 결집을 합니다. 야사 스님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을 상좌부, 따로 모인 스님들은 대중부라고 했습니다.

이후 200년 간 불교는 분파를 거듭해 20여개 파로 나뉩니다. 그것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파가 나뉠 수록 자신의 파가 맞다고 주장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리가 발달합니다. 자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연구가 거듭됐습니다. 전문적인 논리가 발달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너무 추구되면 대중성이 괴리됩니다. 법회에서도 전문적인 논리만을 계속 말하면 대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중부 계열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사상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설산에서 고행할 때 보살이었느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를 보면 깨침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을 보살이라 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살에 대해 〈아함경〉에서는 다시 '나는 중생들을 위해 보살행을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일불 일보살 사상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 중생을 위하는 과정이 보살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가 되면 보살사상이 다불 다보살 사상으로 변화합니다. 팔만 사천 보살이 나옵니다.

이러한 보살의 용어를 분석해 봅시다. 보살이란 말 자체를 보면 보리살타, 원음으로 보디사트바(bodhisattva)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디는 깨침, 즉 불성을 얘기하고 사트바는 유정, 즉 감정이 있는 동물을 칭합니다. 이를 보면 보살은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중생이며, 감정이 있는 부처인 것입니다. 깨쳤으되 유정을 가지고 중생 곁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입니다.

저는 젊었을때 깨우침에 대한 궁금함으로 큰 스님들을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그중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인데 병이 들면 아픔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면 돌덩어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 어떤 스님은 주먹을 내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담 스님은 부처도 네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도 네가지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에 메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것이고 차기고피기(此起故彼起) 피기고차기(彼起故此起)입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기 때문에 담담히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세에 들어서면 보디사트바(bodhisattva)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초기불교에서 출가자의 수행 목표는 아라한이었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捨)가 목적입니다. 재물도 버리고, 감정도 버리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다 버리면 제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보살 불교에서 목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무엇이냐.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욕심이 무엇이냐면 중생 속에서 생활하면서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번뇌와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번뇌를 중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끊임없이 수행하는 중생이요 깨달았지만 정이 있는 부처가 보살

〈법화경〉에 나타난 보살 사상

〈법화경〉으로 들어가 보면 법화경의 제명은 산스트리트어로 '삿다르마 푼다리까 수트라'(Saddharma-pundarika-sutra)입니다. 이 것을 분석하면 '수트라'는 경(經)이라는 뜻이고 '사드'와 '다르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르마'는 법(法), 혹은 가르침이라 번역합니다. '사드'는 형용사로 사용할 때와 동사로 사용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형용사로는 '현존'(現存)의 뜻이며 이외에 진(眞), 옳음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할때는 존재한다, 뛰어나다, 수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푼다리까'는 백련(白蓮) 즉, 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제목만 보아도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묘한 백련의 가르침'이라 번역했으며, 축법호는 '바른 백련의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이상에서 이 경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연꽃은 그 뿌리는 진흙탕에 묻혀 있어도 꽃은 물위에 있어 물 한 방울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실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존재는 성인들 속에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보살의 진정한 가치는 중생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인도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연꽃의 뿌리처럼 중생 속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이 중생들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 해서 중생들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부처님의 이상을 망각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보살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흐트러짐과 더러움, 갈등 고되 속에 뿌리를 박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연꽃 향기를 풍기는 것을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은 크게 진리를 밝히는 것과 보살의 실천행으로 나뉩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은 개권현실(開權顯實)과 구원실성(久遠實成)으로 나뉩니다.

개권현실의 권(權)은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 개권현실은 방편을 열어 진실을 나타낸다는 뜻을 지닙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회삼귀일 혹은 개삼현일이라 합니다.

천태종이나 선종, 화엄종 등은 보살 · 성문 · 연각이 방편이며 진실인 일승, 즉 불승에 들어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론종에서는 일승이 방편이라 주장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존재 할 수 없으며 삼승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불교의 주류를 형성했던 천태 · 화엄 · 선종 계총에서는 삼승 방편과 일승 진실이 정설로 됐고, 후대 대부분 종파나 학자들은 이것을 추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삼승을 돌이켜 일승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개권현실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원실성에서 실(實)은 바로 부처를 말합니다. 즉 부처는 옛날부터 한없는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입니다.

〈법화경〉은 후반부에서 두 번째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보살행을 특히 강조합니다. 물론 전반부에도 보살행의 실천 내용의 구절이 있지만 후반부에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을 품별로 구분해 보면 방편품 · 비유품 · 신해품 등은 개권현실을, 앞서 말한 여래수량품은 구원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품입니다. 보살의 실천행은 법사품 · 법사공덕품 · 상불경보살품 · 약왕보살본사품 ·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덕현 기자





대행 스님

요만한 거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무심으로 하라

마음공부가 좋은 이유

문) 절에 다니다 보면 어떤 기도는 어디에 좋고 어떤 기도는 어디에 좋다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 단지 이 마음공부도 어떻게 보면 중생들이 희구하는 것에 대한 기복일 뿐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 마음공부가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어떤 친구가 조그마한 궤짝을 놓고 선 기름을 얻어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다가 딸은 미쳤죠, 큰어머니는 간질병으로 그렇게 애를 쓰죠, 또 아버지는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죠. 세상에 그런 지망년은 없겠죠. 기름을 그 부인이 몇 개 팔아서 연명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꿨답니다. 꿈에서 책을 보여 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만큼을 지내서 이 고통을 다 받아야 하는데, 아무개 스님을 찾아가서 오천 원만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살려 달라고만 한다면 이 책장이 그냥 넘어가느니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되느니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책장이 조금만 넘어가면 다더랍니다.

그때 꿈에 나를 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몇 십 리 되는 데를 찾아 올라온 겁니다. 찾아 올라와서 오천 원을 갖다 주면서 살려 달라고 하면서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릴 듣고서 오천 원을 안 받으려 해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장사 없죠. 그래서 그 오천 원을 손에 쥔 채 "그 스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올 줄 알고 출타하시면서 돈 오천 원을 가져올 테니 받고 내려보내면 다 괜찮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놓고는 턱하니 그냥 오천 원을 받아 가지고는 풀섶에 앉아 있던 대로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러고는 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간질병도 없어지고 미친 딸도 그대로 괜찮아서 시집보내고 그 발도 그냥 짚고 다니던 거 버리고, 또 그 기름 파는 데 어떤 친구가 와서 큰 가게를 주면서 자기 집 기름을 그냥 갖다 줄 테니거기서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만 판 게 아니라 기름을 짜는 기계를 주어서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자가 돼서 잘 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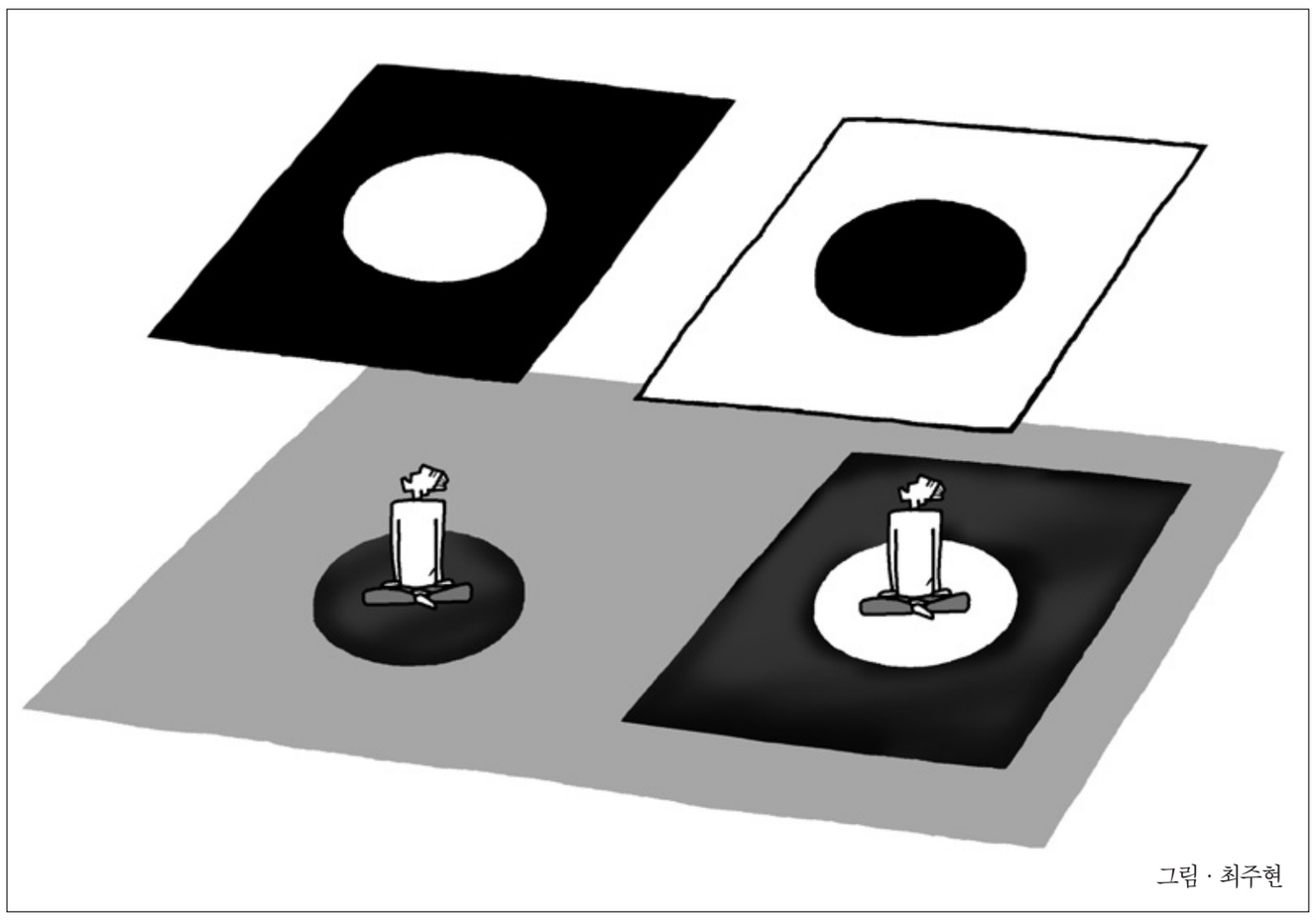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나쁜 거를 다 제쳐 주며 지금 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와 마찬가지지만 그 차 운전수는,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운전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에너지를 자꾸 그 차에다 넣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운전수를 믿질 않아요. 중간에 운전수가 기름도 넣어 주고 또 고장나면 고쳐도 주고 닦아도 주고 아, 이러는데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그 공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건지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공부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의 뿌리를 도와주는 거고 뿌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래로는 햇빚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법신과 부처가 되는 거죠. 아니,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 부모의 은덕도 갚을 수 있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만 잘하신다면 향 한 개비 안 꽂아 놔도, 물 한 그릇 안 놔도, 내가 먹는 밥에서도 위로는 내 부모와 더불어 일체제불과, 아래로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한 그릇 가지고도 먹고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아마 터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무조건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여러분은 여러분 운전수를 믿으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틀립니까?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요

문) 부처님의 근본경전을 읽어 봐도 지옥에 간다 천당에 간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고 설정을 해서 사람을 구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요?

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리고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씨도 아니요 사람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보다도,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무서운 것은 둘째 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들을 낳았을 때 거기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사상이 그르다 해서 만약에 부모한테 어떤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 자식까지도 연관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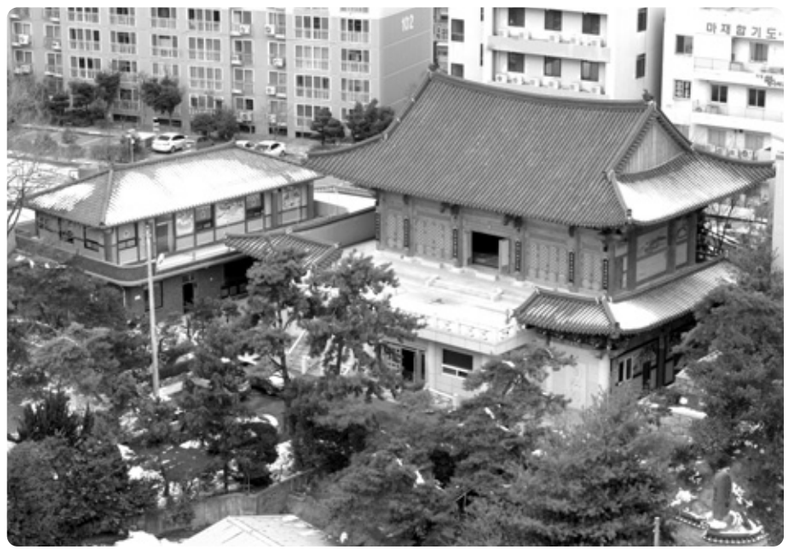
☞ 26면으로 계속

2011학년도 법륜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범음대학은 불교전통의식 범음 · 범패 상주권공 과정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있는 불교전통의식 범음 · 범패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시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승 · 속 · 종단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입 학 안 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상주권공)
▣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 **교육기간 :** 2년 과정 (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 **접 수 처 :** 법륜범음대학 교학처 (법륜사 종무소)
▣ **연 락 처 :** ☎ **종무소 : 062)655-7444**
회 장 : 010-4116-5900
총 무 : 010-7941-0017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번지 법륜사 (금호지구 아파트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기간 :** **불기 2555년(2011)**
2월 1일 (음력 12월 29일) 화요일 ~
3월 3일 (음력 1월 29일) 목요일까지
(청강생 /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1년 3월 10일** (음력 2월 6일)
목요일 오후 14:00 법륜사 대강당
▣ **강 주 :** 상진스님 (前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 現안정불교대학 범패과 강주)



법 륜 범 음 대 학 학 장 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법륜사

강 의 내 용

학년 / 학기	1 학 기	2 학 기
1 학 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치는법, 요령흔드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 (육성례) 불 공 : 삼보통청의식 축원 시 식 : 상용영반, 화엄시식,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 막바라 (요잡바라 기본과정)	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헌좌게 작 법 : 천수바라, 착복 (나비춤), 요잡바라 등 **- 천도의식 본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2 학 년	**- 천도의식 본과정 -** 봉송, 회향, 공덕게 ※ 관욕태징,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계작법, 다게작법,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욕건이(소리춤), 운심게(소리춤), 가지게(소리), 화청, 축원화청	**- 시연회 준비 -**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 작법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 특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 등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까?

☞ 25면에서 계속

활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현실에 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써 이렇게 살지만, 한순간에 꿈같이 내 몸이 사대(四大)로 흩어져서 제각기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몸도 가져갈 수 없고 보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또는 부부와 자식도 가져갈 수가 없고, 모든 권속도 가져갈 수가 없고 권리도 아무것도, 친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벌레로 가지고 나오느냐, 새로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가지고 나오느냐, 개로 가지고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사는 게 뭐,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새 새끼나 짐승이나 땅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 하는 데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짐승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이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짖을 수밖엔 없는 겁니다. 새로 나왔다면 새로 지저귈 수밖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이나 곱게 해 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취를, 발자국을 보는 유래가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그 재를 가지런히 해 놓은 거기에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나고 이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지옥이 우리 눈앞에 그냥 널렸고 천당도 눈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 진실로써 그냥 막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금으로다가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방에 가서 다시 재생돼서 나오지만 무쇠나 넝마라면, 깡통이나 그런 철 종류라면 가서 재생이 돼도 철 종류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세세생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부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문) 이제 갓 결혼한 애송이 부부인데요, 부부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부부의 마음은 그래요. 살다 보면 모두들 두 사람 다 남편은 아내를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만날 때에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금방에는 금이 모여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모여 있고, 깡통전에는 깡통이 모여 있어요. 시장에도 가 보세요. 배는 배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놓여 있죠. 그런 거와 같이 그 인연에 따라서 다 부부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났지.'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고 하거든요. 모두 각자 그냥 부인은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부인 탓을 하니까 이거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사과끼리 만났다면 사과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게 탓을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사과기 때문에 사과를 만났구나. 그러니깐 내 탓이지 저 사람의 탓이 아니로구나.' 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외려 미안해서도 더 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화목과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세요.

꼭 깨쳐야만 하는지요

문) 스님,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간 지 10여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어렵게 꼭 깨쳐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젊고 늙고 간에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앉은 방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중생이라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막댕이만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할 줄 알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를 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 **남의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따르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는 것입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 아이구,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니 인(因)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착을 둔다면 그것도 선인(善因)을 짓는 겁니다, 집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둬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내놔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산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언짢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려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친다 안 깨친다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 좌절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믿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중생이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안되지.'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타인의 일이라도 말입니다. 공장을 처음 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할 때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한생각을 탁 내 줄 때 그 공장은 그대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 주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한생각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우주를 다 덮고 우주를 싸고 아니 닿는 데 없이 닿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능력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몸뚱이도 한 사람 몸뚱이지만 한 사람의 몸뚱이라 해도 이름이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눈이다 코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간이다 하는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름들이 한데 합쳐진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릇이 부처가 하는 노릇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백지장 하나 사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힘이 든다 이겁니다. 마음의 주인공은 바로 가슴에서 느끼는 점입니다. 느끼는 점! 이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느끼는 점입니다. 느껴서 그대로 생각나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이 느끼면서도 못 믿는 것입니다. '야, 이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건 모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건 안된다는데….' 이러거든요.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주인공의 뜻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자재한다면 그대로 법신 아닙니까?

아끼던 개가 몸을 벗었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인데요, 제가 식구처럼 아끼던 개가 몸을 벗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답) 그거는 짐승도 그렇고 우리도 최초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그거 있는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진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끼 그러면 토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생김도 주어지고, 모두 그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여기 가서 저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하여튼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이렇게 되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모두를 둘로 보지 말고 잘 생각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9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1년과정 – 매주 목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목요일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불자 세상보기

'격정 소나타'의 마지막 울림



이강렬
경기대 겸임교수

며칠 전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던 최고은 작가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숨졌다. 나이 32세, 유작이 되어버린 12분짜리 단편영화처럼 짧지만 격정적인 삶의 자취를 남기고 이승을 등졌다. 그런데 원인이 생활고로 인한 지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계 종사자들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두들 영화계의 해묵은 관행이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서이다.

어떤 분야보다도 외화내빈의 이중성을 지닌 곳이 문화계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화려해 보이는 모습에서 그들의 힘든 속내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다. 별생각 없이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대면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벗어나게 해 주는 대상 정도이다.

이면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대부분은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함께 한다.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작가와 스태프에게는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투자자가 없어 제작이 취소되면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관행이다.

고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한 재원이었다. 보도 초기 언론에서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웃집 방문 밖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절박하고 안타까운 이 한 장의 메모는 네티즌과 영화인들을 더욱 비통케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고인에게는 지병이 있었지만, 끼니를 굶은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근에는 가까웠던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영양실조보다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발작 등 지병으로 밝혀졌다. 고인에게는 우울증도 있었다. 아사와 병사, 결과야 어떻든 창작의 길은 고달프고 팍팍하다. 생활고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육체적 고통과 병마를 낳았다.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단지 이윤 창출의 도구로만 보려는 문화산업의 논리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도 최고은 작가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치유를 위한 크나큰 숙제를 남겨주고 갔다. 이제라도 문화계의 계층 간 빈곤의 문제와 불공정한 관행이 시정돼야 할 것이다.

때마침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문화예술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두언 의원 주최로 '한국 영화예술계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례를 통해 "정치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만 모르다가도 어떤 일을 계기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관행, 인식을 함께 고쳐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사람답게 사는 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예술인은 창작행위자 이전에 생활인이기에 열정만으로 현실을 극복하기는 힘겹다. 이쯤 되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대안이 필요하다. 이즈음 예술인에게 복지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그나마도 여당의 특위에서 관심을 가졌다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 작금의 시대는 사회와 주변에 대해 모두들 무심하게 지낸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같이 원인이 있고 해결의 근본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넘어 타인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 아닌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무아(無我)라는 개념에서 보면 원래가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백거이를 향해 도림 선사는 말했다. "악업을 짓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貴意 是諸佛教)." 지금이라도 내게서 가까이 있는 주변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알고 보면 모두들 나 아닌 것으로 부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인의 삶은 그가 남긴 12분짜리 단편영화처럼 너무나 짧았다. 문화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실로 안타깝고 슬프다.

사부대중 칼럼

미래 불교의 희망 군종병에 있다



지용 법사
육군 제25사단
비룡사 주지

군대의 겨울은 어디나 춥고 긴 것 같다. 정신없이 훈련하고 뛰던 가을보다 휴식이 많은 계절이라 더 길게 느껴지나 보다. 겨울이 되면 군법당에서는 부대 여기저기 흩어져 활동하는 군종병들을 모은다. '불교 군종병 집체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개가 넘는 단위부대에서 군종병을 모으다 보니 보통 훈련이 없는 혹서기·혹한기가 제격이다.

집체교육에서는 불교 군종병으로서 알아야 할 예절과 교리, 법당관리와 법회 진행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운다. 특히 비상근 포교사가 법회하는 법당에서 온 군종병들은 실질적으로 '각 법당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이 아니면 법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불교 군종병. 적게는 100여 명의 중대를, 많게는 400명이 넘는 대대급 부대를 대표해서 선발된 이들 이지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불교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점이 불교와 다른 종교 군종병의 차이점이다.

개신교의 경우 군종병 대부분이 학생회·청년회 간부출신이다. 때문에 개신교 군종병은 활동은 물론이고 병사들 자체적으로 교리연구 등이 진행되기도 한다. 부러운 장면이다.

불교 군종병들이 교리 이전에 절하는 법, 합장하는 법, 부처님과 보살님이 무슨 뜻인지 등 불교의 ABC부터 배워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불교를 모른체 불교 군종병이 된 이들에게는 새벽예불과 108배는 체험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군포교 일선에서는 신기한 눈으로 두리번 거리는 그들을 데리고 늘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자세와 눈빛이다. 각 군법당 별로 나누어 모둠토의를 시키고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방향을 토의시킬 때의 진지함은 가히 숙연해질 정도다. 그렇게 사찰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교육은 대단한 열정 속에 진행된다. 강의시간에 교재의 여백마다 빼곡히 써 내려간 메모와 밤늦도록 찾아와 귀찮게 질문하는 녀석들. 새벽예불부터 이어진 강행군에도 아랑곳 않고 매일 밤늦도록 토론이 이어지는 날들. 그렇게 1주일이 지나면 그렇게 어려워하던 신참내기들이 정말 늠름한 법당의 주인들로 변해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간 평가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아가 군불교와 한국불교의 미래까지도 염려하는 대견한 말들도 많이 보인다. 부대로 돌아가서는 이웃종교 군종병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활동한다. 이것이 군법사 생활 속에 얻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격려이고 보람이다.

젊은이들이 없는 한국불교라고 많이들 말한다. 나 또한 유소년 불교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필자는 군불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해 왔다. 군종병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다. 한 해 10만 수계불자라고 해도 정말 마음 속에 '주인'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법회에 참석하는 병사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더더욱 군종병들이 소중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각 법회에서 주인공들이기 때문이고 작은 법당이지만 마음으로는 주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단만 해도 한 해 동안 5번의 심층교육을 수료한 군종병들이 벌써 100명을 넘었다. 전국 400여 군사찰에서 배출되는 군종병은 한 해 수천 명은 족히 될 것이다. 이들만 잘 교육해서 전역 후 각 지역 청년법회에 흡수될 수만 있다면, 각 사찰에 가서도 지금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지금보다 훨씬 젊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군종병 교육 시스템은 걸음마 단계이다. 법회의 무게에 매몰돼 깊이 살피지 못했던 탓이다. 배출된 청년불자들이 제대 후 사회 법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전역한 군종병 가운데에는 주변의 청년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직접 법당을 두루 관리하고, 법회를 준비하며, 직접 목탁을 치고 예불을 올리며 새 불자를 안내하고, 때론 상담도 때론 포교활동도 했던 고급인력들이다. 불교 군종병들. 불교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들을 꼭 주목해야 한다.

社說

무소유의 바보가 되자

2월 28일(음 1월 26일)은 법정 스님이 열반한 지 1주년이 된다. 평생을 청빈한 수행자로 살았던 스님. 지금도 '무소유' 하면 법정 스님으로 통한다.

이에 앞선 16일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2주기였다. 김 추기경의 천진함은 그에게 '바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무소유와 바보. 이 시대의 큰 스승이던 스님과 추기경은 생전에 길상사와 명동성당을 오가며 교류했다. 스님은 성당을 찾아 '강론'을 했고, 추기경은 법당에서 '법문'을 했다.

스님과 추기경이 보여줬던 친교는 이제는 볼 수 없다. 신앙이 달랐던 그 교감만큼은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두 손을 맞잡았던 영혼의 도반으로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두 분이 보여줬던 화해와 소통의 분위기는 최근 간 곳 없다. 다종교 사회로는 드물게 종교전쟁이 없던 한국의 종교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불교 폄훼다, 종교편향이다 해서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기세이다. 바람도 거세다.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 순종서약이 보란 듯이 강요됐다. 경기 고양의 한 중학교는 교회 부속 건물에서 졸업식을 치렀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마당에서는 확성기를 든 목사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지난해 12월 극우단체들이 군화를 신고 행패를 부린 기억도 있다.

우수를 앞둔 18일, 낙동강변에서는 한줄기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조계종은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유역 낙단보에서 '생명살림 민생안정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4대강 사업 중에 발견된 마애불을 찾아 참회를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없었지만 동참 대중의 표정은 결연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에서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국불교이기를 발원하고 다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권력과 외부에 기대었던 자세, 자주권을 볼모로 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모습으로 인해 민족문화가 왜곡됐다고 참회했다. 편향된 종교적 이해와 갈등 조장 등이 모두 불교계 스스로의 허물에서 비롯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결사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이지 못한 결사는 여전히 먼 산의 메아리와 같았다. 생경하게만 들렸다. 왜, 무엇 때문일까?

자성과 쇄신의 결사에서 자기반성이 결여됐다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알맹이 없이 구호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080배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일 뿐이라는 비판이 아우성친다. 진정성이 없다는 우려도 가득하다. 과거에 다 제기된 이야기라는 말도 들린다.

교계의 눈 밝다 자처하는 이들은 결사의 외침 뒤에, 1080배의 땀방울 뒤에 어리석음과 탐욕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정 스님의 맏상좌 덕조 스님은 "은사스님은 말·글·행동이 일치했던 참 선사이다"라고 말했다.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모두의 온 몸에 체득되려면, 낙단보의 바람이 훈풍이 되려면 교계 구성원 각자가 무소유의 바보가 되어야 한다.

사뭇 무소유와 바보가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이것이 선인을 추모하고 기리는 이유이다. 28일 길상사에서 만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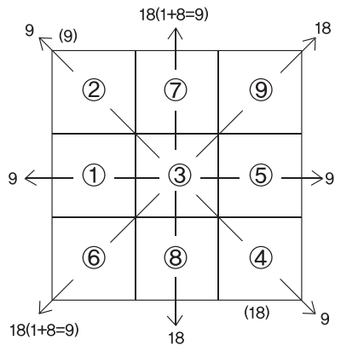
· 자비불교실천연합 회장 (현)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금·토요일 : 오후 1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교학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수학과	[기간 – 1년] 월,수요일 :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리학과	[기간 – 6개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로학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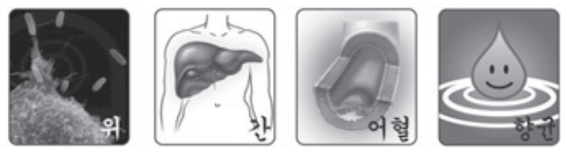
15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영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반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족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3일째 아침에 숙변이 신형상에 반모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을잘도 잘자았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몸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몸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장점이 없어 퇴원한 후 오주아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장점이 없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품사가 신문을 해보지만 형양소자 실험하지 않았지만 설용해 줄 물의 성의로 방문하기 시작했지 (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실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주아다 거든 병원을 3개월에 1병으로는 양을 늘게 되었으며 현재의 간수치는 54.22 로 돌아왔으며 혈당도 4에서 3.5로 수렸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지로 복가능 했던 바톨우종이 없지 되었으며 명적영이 약물없게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이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게 아침이 같은 표진대로 옻계에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마셨습니다.
기관지 염병으로 4년전. 1년정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간 적이 있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계녀 참옻진액을 마시면서 몸이 서서히 열이 나고 서서히 땀이 나서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을잘도 잘자았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족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몸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옻몸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